

速記界

第七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目 次

<卷頭言> 새로운 認識.....理事長 安 仁 榮..... 2

◇ 會議錄市販의 可能性.....金 永 春..... 3

◇ 誤字·脫字·添字의 概念과 問題點金 敬 萬..... 6

◇ 말이 印刷되기까지金 永 善.....10

◇ 敎養學에 대한 理解禹 在 忠.....12

<海外消息>

펜실베니아 速記士協會의速記 展示會14

第 2 回 全國速記士 資格檢定試驗16

第 2 回 全國速記競技大會.....18

第 9 回 夏季無料速記講習.....20

□ 座談 速記講習을 마치고.....23

● 受賞所感： 이榮光을金 仙 玉.....19

● 開 拓朴 永 萬.....29

● 酒 村李 大 奉.....30

隨 筆 | 路邊雜商.....金 源 柱.....32

 | 放送速記와 나徐 允 錫.....34

 | 有 感.....申 熙 東.....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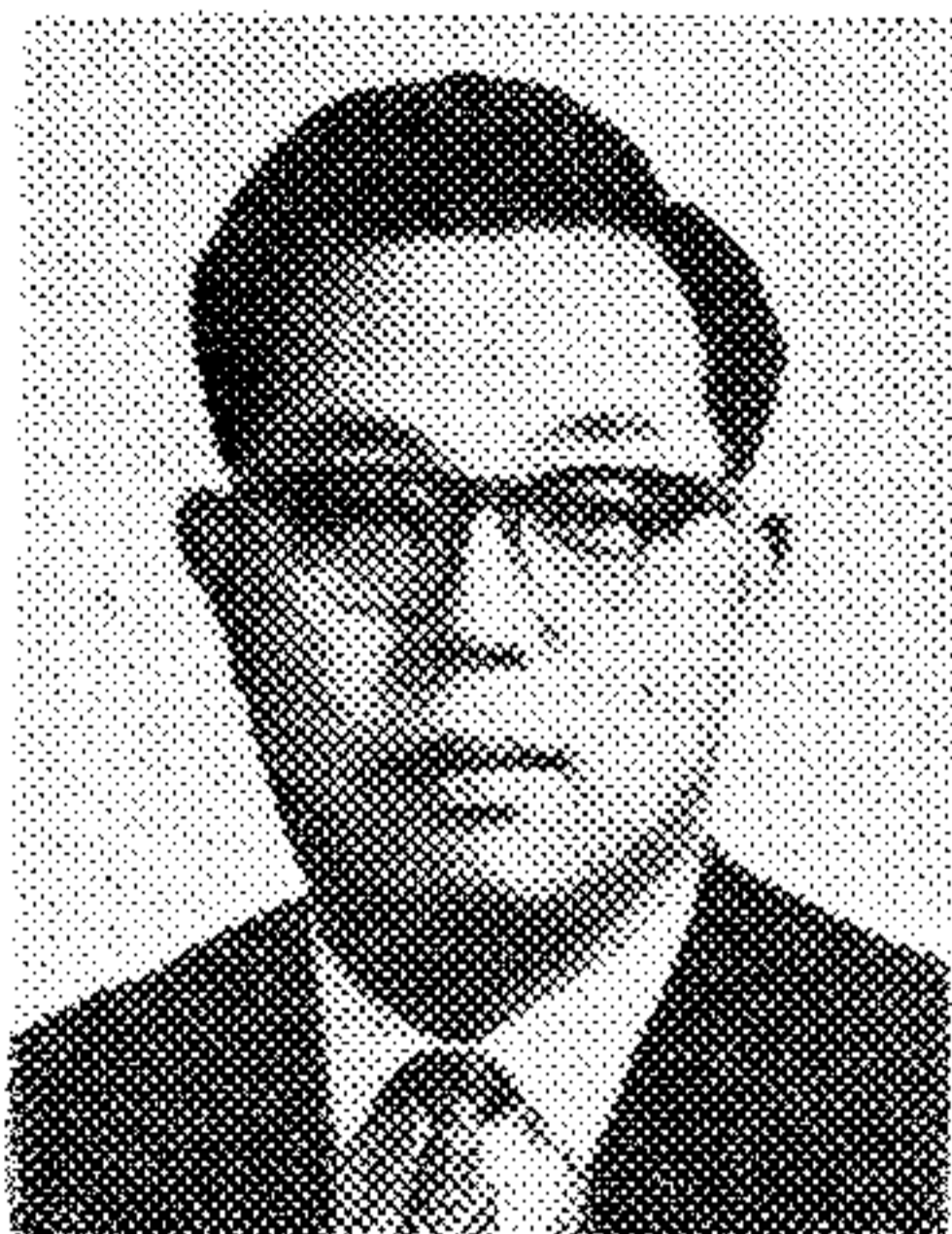
<創作> 成 長金 致 元.....37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定施行細則>.....40

表紙·蔡 康 熙 寫眞·金 善 弼

새로운 認識

理事長 安 仁 榮



오늘날 韓國의 速記界는 速記講習의 規模, 形態, 그것을 뒷받침하는 社會의 速記에의 關心, 認識, 速記의 價値와 需要構造等 各分野에 있어서 새로운 意識이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韓國의 速記界는 1909年 朴如日에 依해 우리 速記法式이 創案發表된 以後 62年이 되는바 우리도 이제 大轉換期를 맞이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어떤 強迫觀念에 쫓기고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速記記號體系는 어느 速記法式을 莫論하고 基本文字와 略記法으로 大別된다.

애당초 이 記號體系는 發言의 記錄을 目的으로 한데서 略記法이 研究되어 왔고 또 그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 效率化>를 期해온 것은 當然한 추세로서 可能한 限 簡單하게 速記될 수 있는 記號를 否定할 理由는 없다.

그러나 速記記號體系中에는 文字와 같은 機能및 特性을 갖는 部分이 存在하여 言語를 記錄하는데 必要한 모든 音에 對應한 記號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文字는 말할 것도 없이 言語를 視覺적으로 表現하는 記號인데 이것이 Communication 및 情報의 Stock 手段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共有度 (외우기 쉬운), 再現度 (飜文하기 쉬운) 등이 要求된다.

速記記號體系中 略記法의 部分에 있어선 記號를 運用하는 사람의 知識의 程度에 따라 달리 運用되는 수도 있으며 恣意運用部分을 否定할 수 없지만 基本文字의 部分은 前記條件을 거의 完全히 達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速記記號 自體의 簡略性向 때문에 習得度 (익히는데 必要한 學習時間)와 記錄度 (쓰는데 必要한 에너르기 및 時間)에 있어선 既存文字記號보다 훨씬 뛰어나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發言을 手段에서 보더라도 보다 效率적으로 速記한다는 點에서 본다면 基本文字部分은 略記法을 터득해가기 위해 必要한 一段階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速記記號에 依하지 않고 記錄하는 것을 前提로해서 그記錄을 文字의 效率化라고하는 觀點에서 본다면 機能的으로 文字體系로서 容認되는 範圍의 速記記號라 할지라도 現存의 文字記號보다 構造的으로 優秀한 價値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社會에 널리 速記의 價値와 效用을 認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點의 價値認識이 먼저 速記界 스스로에서 正確하게 알려져야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會議錄市販의 可能性

金 永 春

本人이 누차 公開席上이나 私席에서 國會의 會議錄에 대한 市販을 우리 大韓速記協會가 擔當해서 이 事業을 밀고 나아가야 된다는것을 主張해 온바가 있다.

그 理由는 本協會 定款 第4條 4項(速記文化의 宣傳出版에 관한 事項) 7項(言論報道分野에 있어서의 速記에 관한 事項)을 忠實히 履行코자 함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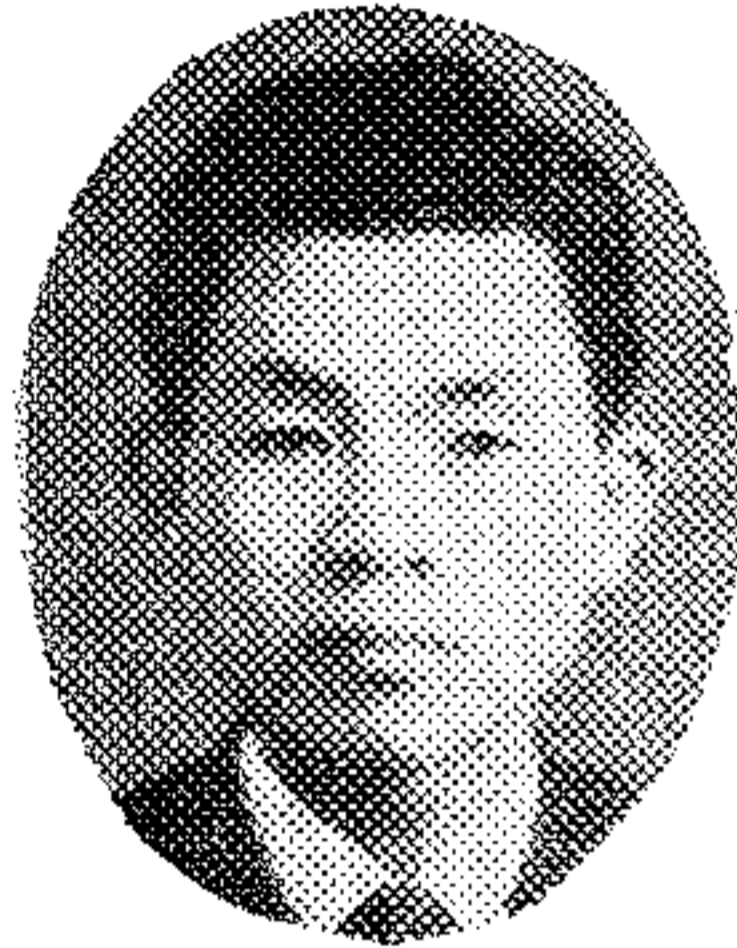
또한 이 會議錄(速記錄) 市販의 方法으로만이 우리의 速記를 보다 大衆에게 認識시키는 소위 보급의 大衆化에 보탬이 될수있고, 또 速記人으로서 速記協會로서 國會의 院內活動의 眞面을 國民多數人에게 間接적으로 觀覽시킬수 있으리라는 慾望에서 主張을 해 왔던것이다.

그래서 本人은 「速記界」편집실에서 주어진 題目 그대로 會議錄市販의 可能性에 대한 所見을 몇자 적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憲法 第46條에는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라고 한 明文이 있다.

이것은 會議公開의 原則을 認定한 것으로서 그 方法은 다음과같은 것이라고 본다.

첫째 會議場의 傍聽을 許容하는것이라고 하겠다. 現在 우리나라 國會는 本會議場에 464名이 會議狀況을 觀覽할수 있는



傍聽席이 있을뿐이며 많은 사람이 방청을 願하는 경우일지라도 여러가지 制約으로 制限된 人員外의 사람은 방청을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會議場의 秩序維持의 必要性으로 해서 人員을 制限한다거나 방청권의 所持者에게만

入場을 許可하는 것이 公開原則에 違反되는 것은 아니겠다. 그러나 制限의 範圍를 넓힌다고 했을때 (觀覽席의 增加 住民登錄證所持者는 入場可) 能히 방청할수 있는 多數의 사람들도 발길을 되돌려야 되는 경우가 許多하다면 公開原則에 忠實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公開原則의 意義에서 印刷 放送 등의 手段으로 一般人에게 알리는것도 한 方法은 되겠으나 會議錄 반포만큼의 效果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重要한것은 會議錄의 公表를 意味할 것이다. 會議錄이라는것은 議會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會議錄을 公表한다는 것은 議會라는 거울을 萬人이 볼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수 있는 것이다.

現在 우리 國會는 一般人이 볼수있도록 公表는 하지않고 있으며 다만 官報에 掲載하고 또 會議錄을 議員에게 配付하고

있으며 道, 市, 郡, 面단위에 各一部씩 發送하고 있는 程度인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選舉人 全體로 볼때 極小數人이 볼수있도록 한것에 不遇한 것으로서 公開原則에 忠實을 期했다고 할수없는 것이다.

新聞 放送의 例를 들수 있겠으나 新聞이나 放送이란 國會內에 常設된 新聞放送이 아닌 以上 그 議會의 進行過程의 報道를 正確히 할수없는 것이며 「記者나 各社의 意見이 加味되기 때문에」 速記錄(會議錄)만큼의 完全한 議會全體 狀況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會法 第111條에 보면 「會議錄은 官報에 掲載하여 이를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반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一般에게 反포한다는 것은 會議錄을 多量으로 複寫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도록 한다는 意味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國會實情으로서는 上記한바와 같은 極小한 部分에만 配付하고 있을뿐 一般에게는 反포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會議公開의 原則은 會議場의 旁聽인에 대한 傍聽許容에도 意味가 있겠으나 거기에서 作成되는 會議錄의 公表를 意味하며 公表란 一般人에게의 反포를 意味하는 까닭에 本人은 國會自體로서는 豫算의 不足으로 實行치 못하고 있는 이 業務를 우리 協會가 擔當해서 그 反포의 가장 적절한 方法인 市販이 早速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國民의 가장 基本的 權利인 選舉權을 行使할때에 投票場에 오는 모든 有權者들은 選舉後에 議會가 어떻게 活動을 하는가를 注視할 權利

와 義務를 同時에 갖는것이다.

그들은 選舉에서 當選된 한 議員 個人이 自身들을 爲해서 議會內에서 어느 程度의 政治活動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 걸었던 公約을 어느程度 實現시키기 위해서 活動하고 있으며 院內에서의 發言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될것이며 또 알려고 努力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알아야 되며, 알려고 하는 努力이 議事堂과 距離가 떨어진, 或은 旁聽의 機會가 주어지지않은 一般人이 어떻게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는가?

本人은 協會事業의 하나로서 이 會議錄 反포의 事業을 해야 된다고 본다.

本人이 지난6月 農林委員會 會議室에서 議事局 全職員에 대한 國會法教育時 尹東寶副局長에게 會議錄市販에 대한 質疑를 했던바 그 答辯에서 會議錄市販은 早速히 이루어져야 된다. 단지 國會에 豫算이 없는 關係로 그 事業을 希望하는 業者가 있다면 그에게 委託을 해서 하되 우리로서는 그 業者에게 豫算上의 뒷받침이라도 해주어서 그 事業을 獎勵해 주어야 될것이라는 말을 한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볼때 會議錄의 市販의 可能性은 더욱 確實한 것이며 우리가 주저해야 할 理由를 充分히 배제한 것이라고 본다.

勿論 우리는 協會로서 이 事業을 하려고 할때 難關이 많을줄 안다.

販賣의 方法

會議錄 內容이 自黨에게 不利한 政黨의 販賣禁止要求

文化公報部와의 절충문제

會議錄複寫方法

販賣人の 確保

支部設置

販賣價格決定 및 利益金の 處理等々の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파도가
두려워 고기잡이를 포기하는 船員이 될 수
야 없지 않겠는가?

여기서 現在 國會 會議錄을 市販하고
있는 나라들의 實例를 들겠다.

週刊誌形式으로 해서 週刊速記錄을 發
行해서 一般에게 市販하고 있는 나라는
英國「이스라엘」 「덴마크」 「오스트라리
아」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카나다」 「세이
론」 「핀란드」 佛蘭西, 印度, 日本 「아이
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和蘭 英
國 美國 歐州會議 등이 一般에게 日刊 및
合本으로 市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實例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市販의 速度가 늦었으며 이미 이루어졌어

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今番 8代國會는 우리나라 議政史上 가
장與野가 均衡있는 國會를 이루었다고 본
다. 이런때일수록 온 國民의 關心이 이
國會에 集中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이루어
지는 結果를 알고져 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記錄만을 나타낸 新聞이나 放
送만에 모든것을 의지하고 있는 국민들에
게 우리 速記人들의 努力으로 이루어지는
會議錄을 하루 速히 市販을 해서 議會의
속임없는 事實 그대로를 보여주는 이 事
業에 우리 모두가 힘을 合해 보자.

(國會速記課)

參考文書

國會法解說(改訂版)

日本の 速記

英國 Hansard

—— 學校巡廻講習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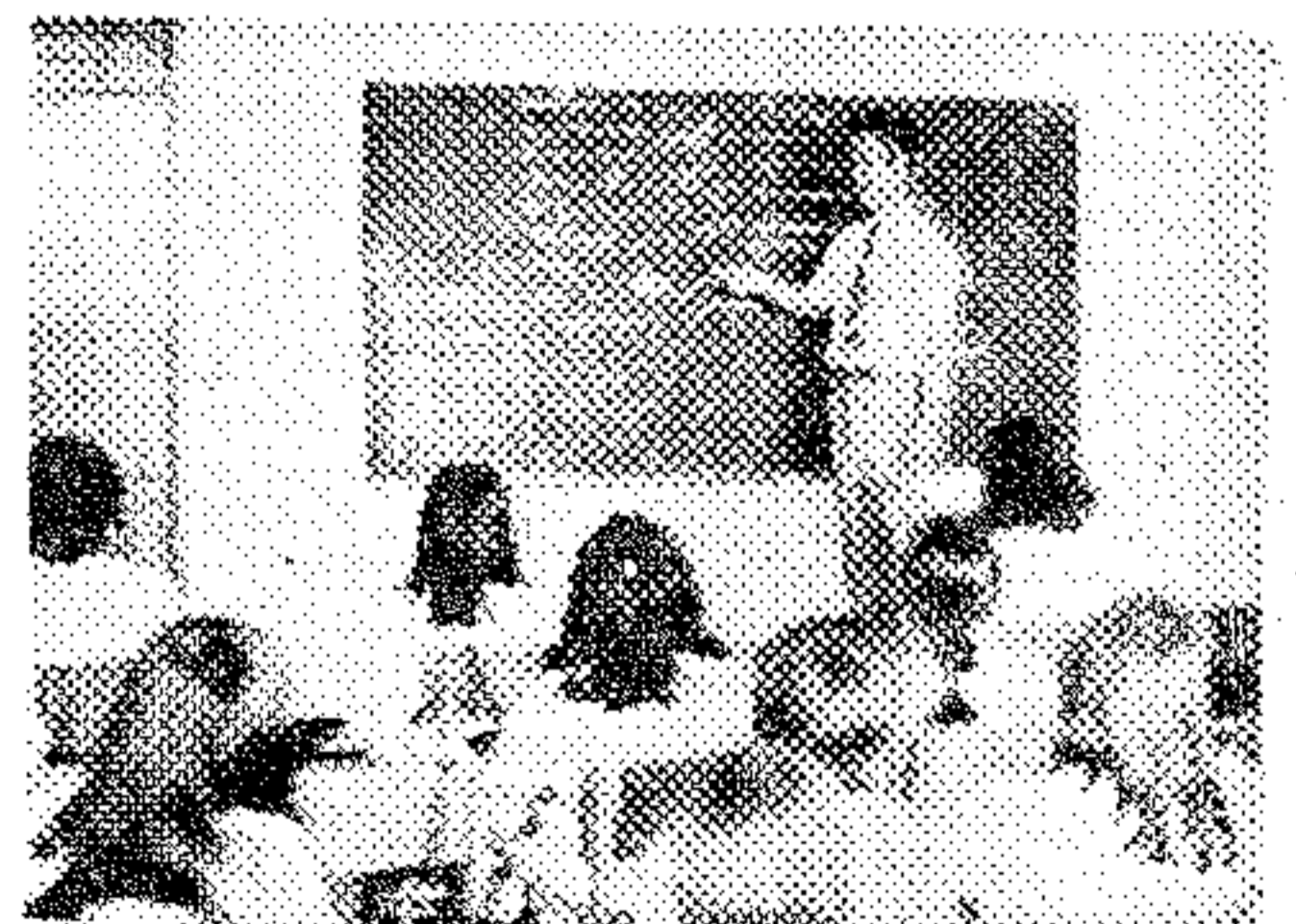
協會 무료速記강습의 一環인 學校巡廻 무료속기강습의 今年度 事業이 다음과 같이 實
施 完了되었다.

○ 德成 女子 大學

德成女大 英文科 商經科 3. 4學年 104名에 대하여 지
난 6月 21일부터 7月 21일까지 1個月間 42時間 Gregg
英語速記 강습이 實施되었다. 講師엔 盧英民外國語部
長이 擔當하였는바 大學當局의 積極的인 協助下에 所
期의 成果를 挙우었다.

○ 中東高等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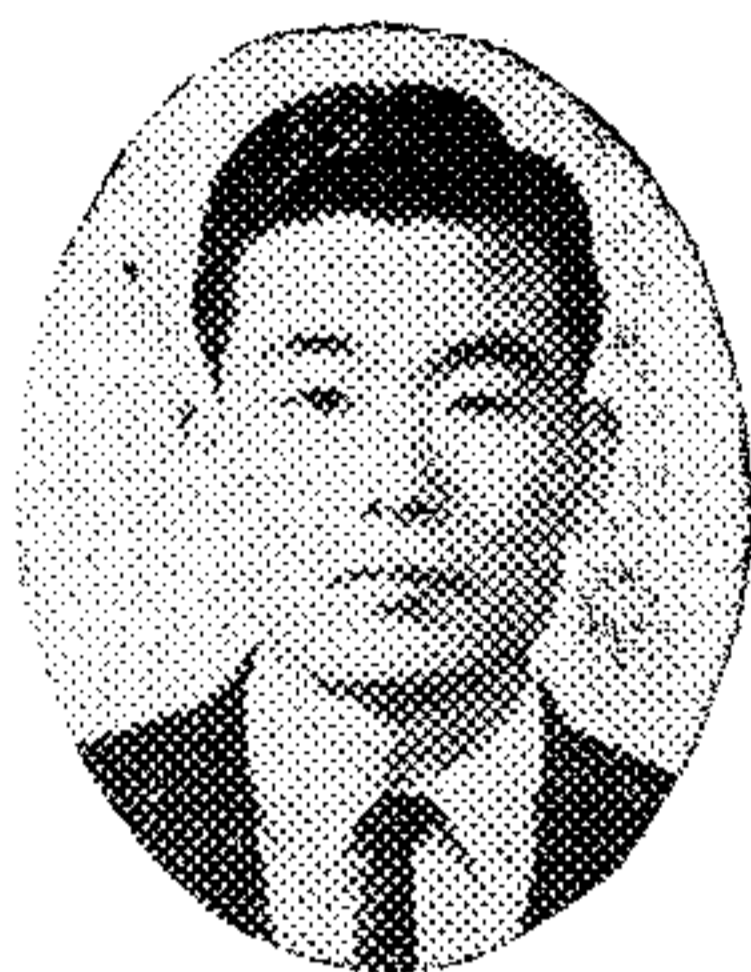
中東高校 1學年 70名에 대해 지난 6月28일부터 7月28일까지 1個月間(42時間) 國語(逸
波法式)速記 강습이 實施됐으며 講師엔 國會速記課의 楊澈在씨가 擔當했다.



誤字, 脫字, 添字의 概念과 問題點

金 敬 萬

速記란 線의 曲, 直 그리고 點과 位置를 利用한 符號體系로서 一般文字體系와의 關係에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聯關性을 지닌 學問이며 高速度下에서는 言語速度와 一致하지 않으면 안되는 빠른 筆記能力을 갖추어야 하는 技術이다.



總誤字란 誤譯에 의한 誤字 脫字 및 添字의 總合算을 말한다.

그러면 誤字 및 脫字 添字에 대한 하나 하나를 例文을 들어 記述해 본다.

1. 誤字

學問은 原理와 理論에 대한 頭腦의 知識을 技術은 修練에 대한 技能의 尺度를 測定하는 「테스트」의 段階로 試驗이란 關門이 人間 生存競爭의 成敗를 가름하고 高下階級 또한 區別지어지는 것이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 이같이 人間이 生存競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以上 人類文明의 發達의 利器로 조그마한 一部分을 차지한 速記도 여기에 例外가 될수는 없다.

速記文字의 正確性에 대한 技能 및 多様な 言語의 理解力 등의 評價 이것이 곧 速記의 優劣을 가름하는 正確度測定의 百分率로 나타나고 이것을 評價하는 手段으로서의 用語를 誤字, 脫字, 添字 등으로 간추려 볼수 있다.

正確度란 「總記錄 글자數와 總誤字에 대한 百分率」이라고 速記概觀에서 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總記錄글자數란 制限된 時間內에 朗讀된 글자(音字)數를 말하고

國語辭典에 의하면 「잘못쓴 글자로」 풀이 되고 있다.

이 경우는 速記原文의 記錄時 첫째, 바르게 듣고 바르게 翻譯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한글 表記의 잘못으로 記錄劃線의 加減 받침 表記의 잘못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세심한 注意力의 缺如現狀이다.

둘째, 바르게 듣고 바르게 記錄되었으나 誤譯에 의해 表音된 原文과 翻譯文의 錯誤現狀으로 이는 速記文字의 合用 또는 兼用에 의한 原因과 一劃 一音を 原則으로 하나 略字 또는 略法等으로 잘못 翻譯된데에서 오는 현상, 또는 바르게 들었으나 速記原文記錄의 잘못 즉 誤記에 의한 현상등을 들수 있다.

셋째, 誤聽 즉 잘못들은 경우로 發音의 부정확이나 聽取力의 不足 또는 言語理解力의 不足 등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誤字에 대한 例		오자표시 ×		
區分	原文	翻譯文	誤字數	備考
첫째	①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 ×	2자	획수의 부족및 받침 맞춤법
	②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빚어 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비 져 냈다. ×	2자	
둘째	① 증언을 기피하고	증언을 회피하고 ×	1자	오역
	② 이와같은 절차에 의한	이와같은 절차에 관한 ×	1자	오기
셋째	국민의 의혹과	국민의 의욕과 ×	1자	오청

2. 脫字

國語辭典에서는 「빠져 없어진 글자」로 풀이되고 있으나 속기概觀에서는 좀더 具體的인 說明을 加해 脫字란 「記錄하지 못하였거나 翻文 하지 못하여 빠진 글자」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 경우는 速記原文의 記錄時

첫째, 速記能力이 朗讀速度에 미치지 못해 原文의 기록에 漏落을 빚게되는 현

상으로 速記術研磨의 不足과 適性에도 관계가 된다.

둘째, 記錄能力은 미치고 있으나 速記原文의 翻譯이 되지않는 현상으로 이는 速記學習得過程에는 文字의 不正確을 들 수 있고 또 速記文字의 表記의 劃線, 方向等의 誤記에서 오는 翻譯의 不可能等을 들 수 있다.

셋째, 誤聽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脫字에 대한 例		탈자 표시 ×		
區分	原文	翻譯文	脫字數	備考
첫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 기구를 가지고 할수 있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 ...있지 않느냐? ×	12자	기록 능력 미달
둘째	이러한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자	오역 또는 오기
셋째	제시 하라 하는 것이고	제시 하라 는 것이고 ×	1자	오청

3. 添字

速記概觀에 의하면 「記錄上の 錯誤나 誤聽으로 因하여 翻譯할때 添加된 글자」로 풀이 되고 있다.

이 경우는 速記原文의 記錄時

첫째, 不正確한 記錄이나 正確한 記錄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를 분간치 못해 고의적으로 들을 다 記錄하는 경우와

둘째, 誤譯에 의한 경우로 一劃 一音의 原文을 2音以上の 略字 또는 略法으로 翻譯의 角度가 달라지는 때에 오는 현상이다.

셋째, 역시 오청에 의한 경우다.

添字에 대한 例			添字 표시 △		
區分	原文	翻譯文	添字数	誤字의 환산	備考
첫째	① 육성시키기 위해서	육성시키기 위하여 해서 △△	2字	2/3字	고의
	②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조치는 △△△	3字	1字	"
둘째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	1字	1/3字	오역
셋째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	2字	2/3字	오청

이상 再強調하거나와 迅速과 正確은 速記의 生命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實務面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될지도 모르나 試驗이란 段階에서 글자 한자 한자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誤字, 脫字, 添字 등의 發生要因 및 先例로 되어 있는 正確度測定方法 즉 總誤字 換算 要領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을 체크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오늘 가도 좋습니다」로 된 原文을 「오늘 안가도 좋습니다」로 翻譯文이 됐을 때의 경우 現在는 添字 一字로 換算하고 있으나 正反對의 뜻을 가진 번역문 이 됐기 때문에 이는 벌칙에 의해 「안」은

없는 글자가 1字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勿論 添字 1字로 그리고 「오늘」以上 「가도 좋습니다」는 誤字 6字로 해야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둘째, 현재 添字 3字를 誤字 1字로 換算하고 있으나 添字에 대한 더 가혹한 규정으로 添字 2字를 誤字 1字로 換算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셋째,亦是 添字에 대한 規定으로 「… 하기 위해서」를 「…하기 위하여서」로 誤譯했을때 現在는 誤譯으로 간주 誤字 1字로 체크하고 있으나 原文 5字에 翻譯文이 6字이므로 이는 添字 1字에 誤字 1字로 체크되어야 한다는 說과

넷째, 數詞 또는 外來語의 경우

「3295」는 「삼천이백구십오」로 原文과

記錄된 글자數는 4字가 되나 發音된 音字는 7音字이고 「A I D」는 「에이·아이·디」로 記錄된 글자數는 3字이나 發音된 音字數는 5音字로서 물론 朗讀文이나 翻譯文은 4字 또는 3字로 같이 체크하면 되고 發音된 音字數는 묵시해 버릴수도 있는 문제이나 연구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다.

다섯째, 4字熟語의 경우 「東問西答」을 「西答東問」으로 바꾸어 表記했을 때 뜻은 勿論 語感 그리고 事實에 어긋나는 표현이 됐을 때의 문제와 「乾燥無味」를 「無味乾燥」로 바꾸어 表記했을 때 뜻이 바뀌지 않고 흔히 바꾸어 쓸수있고 문장 전체에 아무런 뜻이 바뀌거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때 誤字의 체크방법 범위 등에 대한

것도 논의될 만한 문제가 아닌가 본다. 이상 현행 採點規定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 몇가지를 생각나는대로 열거해 보았으나 이것이 연구과제로 채택된다면 보다 많은 결점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리라 믿는 바이다.

끝으로, 물론 國會속기과 그리고 速記士養成所 或은 私設學院 기타의 곳에서도 論議possible한 문제이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大韓速記協會에서 우선 論議되고 규정되어질 문제가 아닌가 보며 이에 대한 연구와 檢討가 되어지기를 의람되나마 당부해 두고자한다.

(國會速記課 · 國會速記士養成所速記學講師)

(消)

(息)

◇ INTERSTENO

지난 7月 24日부터 30日까지 부랴셀에서 열린 第29回 INTERSTENO(國際速記·타이핑·秘書聯盟)大會는 32個國 540名의 代表가 모여 盛大히 舉行되었으며 第30回大會는 2年後 스페인 「바렌시아」에서 열릴 豫定이다.

◇ 表彰

지난 4月 3日 <豫備軍의 날>을 맞아 崔錫模會員(國會 速記第4係長)이 第30師團長으로부터 豫備軍功勞表彰을 받았으며

8月 31日 全海成會員(國會速記課)이 國會事務總長으로부터 亦是 豫備軍功勞表彰을 받았다.

◇ 對談

9月 11日 The Korea Herald 英字新聞社의 要請으로 同紙 掲載를 위한 對談을 가졌다. 對談內容은 <國會速記業務現況>이 었으며 對談者는 金鎮基速記擔當官을 비롯 李龍洙, 金仙玉, 李賢熙, 梁源龍등이 參席했다(參照·Kovea Herald 9月 17日)

말이 印刷되기 까지

—속기사의 집무한계를 느끼며—

金 永 善

인생 40이면 자기의 얼굴에 대한 責任을 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릴때의 얼굴은 부모님의 유산이고 자라는 동안 長成해서의 마음가짐과 行動여하에 따라 자기가 責任질수있는 자기의 얼굴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상에 누가 얼굴을 불적에 責任질수 있는 얼굴인가 없는 얼굴인가를 가려서 보아 줄것인가, 대개 나타난 外樣을 보고 그 內容을 評價하는 것이 우리들의 生活이라고 여겨진다. 內容이야 어쨌든간에 外樣이 좋으면 우선 좋은 印象으로 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서로가 否認하지 못할 事實일 것이다.

國會에서 속기직원의 參與로 만들어지는 會議錄(통칭 速記錄)의 경우도 그 나타난 얼굴 즉 印刷가 끝난 인쇄물을 놓고 會議錄이 잘되었다 또는 잘못되었다 하는 評價를 받게된다. 그 會議錄이 충실한 內容을 가질려면 速記職員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原稿의 充實與否가 그 根幹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原稿=會議錄이라는 公式이 언제나 一致하는 것은 아니라는 點이 看過되는수가 많다. 우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한장을 찍어도 그 사진이 잘 나오기까지에는 몇가지의 條件이 부합되어야한다. 첫째로 고장없는 카메라를 가지고 좋은 필름을 넣어야 하고 둘째

는 거리 광도등을 잘 맞추어 사진을 찍어야 하고 셋째 현상 인화가 잘 되어야만 좋은 사진을 製作해 낼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들 生活周邊에서 흔히 망각되기 쉬운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이 잘됐으면 그저 “그 사진 잘 됐다” 또는 “그 사진 잘 찍었다”고 表現되는것이 대부분이다. 우리의 업무도 그와 닮은 데가 있다. 이것은 議政史의 기록이니 항상 正確해야할 義務가 있는 것이요 잘못됐으면 맨 먼저 속기의 잘못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속기직원이 말은 分野가 會議錄을 만드는 全過程은 아닌것이다. 會議場에 들어가서 들은대로 速記하여 원고지에 옮겨주면 끝나는 것이다. 사실상의 會議錄作成을 위한 기본자료의 作成에 不過한 것이다.

會議錄도 좋은 會議錄이 되려면 첫째로 發言內容이 잘 되어야한다. 아무리 속기를 잘해도 文脈이 通하지 않는 말, 일반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섞이면 그 말이나 그 말을 적은 會議錄은 意思傳達의 媒介구실을 제대로 할수없게 될것이다.

둘째로 速記하는 과정은 寫眞을 찍는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音을 媒介로 하지만 그 意味를 듣는 것이

지 그 음 하나하나를 듣는것은 아니다. 例컨대 <滿場하신 신사>하면 그 다음은 의례히 <숙녀 여러분!>이라는 말이 따른다는 前提를 가지고 듣는 것이며 만, 장, 하, 신, 신사, 숙녀, 여러분, 하는 式으로 한자 한자 듣는것은 아니다. 또 <쓰드라도>하는 말을 <씨드라도> <들어가서>를 <덜어가서>라고 말 했다고해서 그대로 옮길 것인가. 분명히 第111條인데 第 112條라고 분명하게 發言 했을때 과연 第112條라고 固執할 것인가. 소리나는대로 錄音되는 것과는 먼 距離가 있는 것이다. 錄音은 우물 우물 하는것도 그대로, 음의 高低 長短도 그대로 錄音이 되지만 音을 듣고 文字化시키는데에는 애매한 것이 있을수 없으며 무엇인가 우리가 使用되고있는 文字를 가지고 그 말을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結局은 속기직원이 들을수 있는限 속기직원의 머리를 한번 지나가는 過程에서 어느 程度 言語가 걸려진다는 것은 否認하지 못한다. 國會의 會議錄은 소리대로 적는것을 原則으로 하기때문에 되도록 소리나는대로 즉 말한대로 一致시키기에 努力을 하지만 正確히 表現한다면 우리가 아는말 즉 자기가 배운 표준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기록자들이 音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다. 何如間 속기직원이 記錄過程의 正確을 爲해서 또 그것을 原稿化시키는데 最善을 다하지만 未熟한 面이 생길수 있는 틈이 이런데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것이며 그것을 爲해서 努力하고 원고화 시킴으로서 우리의 일이 일단은 끝나는 것이다.

세째로 이와같이해서 完成된 原稿가 會議錄이 되기에는 원고가 수집된 뒤에 選字 組版 校正 印刷등의 過程을 거쳐야 하는데 校正過程이 第一 문제인 것이다. 原稿와 印刷物과의 內容을 一致시키는 것이 校正이지만 이것도 技術을 要하는 分野다. 말만 된다고 해서 다된것이 아니고 한字 한劃 원고와 一致如否를 찾는것이니 一切의 先入感 없이 한字 한字 맞추어 나가야 할것이다. 여기에도 한글인 경우 ㄱ과 ㄷ을 區別못하게 쓰는 사람등 漢字를 너무 有能(?)하게 흘려써서 읽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隘路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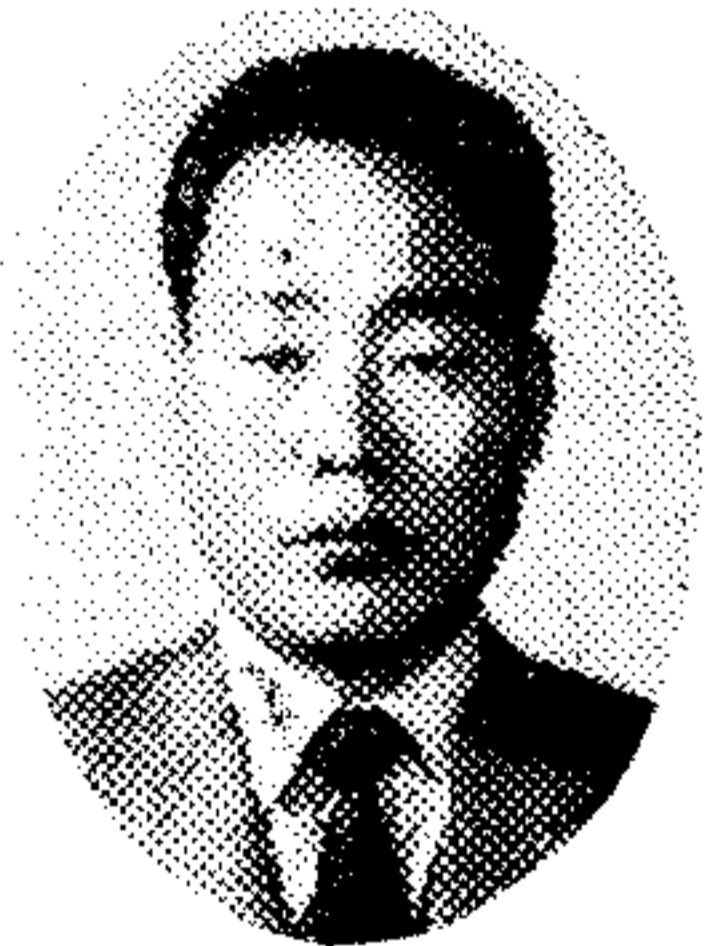
이와같이 여러과정은 다 잘 거쳐야만 좋은 會議錄이 나오게 되는데 잘 나오면 有能한 속기사가 속기한것이 되고 말 自體나 校正過程의 잘못으로 會議錄이 잘못 되어도 能力없는 속기사가 속기한 것으로 誤解받기 일수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會議錄이 나왔다 해서 전부 우리의 努力으로 된것이 아니라는 뜻을 認識하고 苦衷을 들어도 칭찬을 받아도 우리의 말은바를 충실히 했다고 할수있는 功地로서 確한 일꾼이 되어야 겠다. 그렇게 함으로서 회의록이 잘 나오기 까지 여러 관계자들의 誠意있는 협조로 좋은 會議錄이 나오도록 各自 努力하고 이 努力이 常例가 되어 굳어지도록 꾸준한 努力을 계속해야만 國會의 會議錄은 宜當 正確하고 誤字 脫字없는 記錄文獻이라는 인상을 심어 40고개를 넘은 端雅한 모습을 한 신사와 같은 像을 定立해야만이 우리나라의 民主憲政史에 君臨할수 있을것이다.

(國會速記第3係長)

敎養學에 대한 理解

— 速記敎育에 關하여서 —

禹 在 忠



國會速記士養成所는 그 專門化된 技術的 職能人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速記學에 附加해서 速記에 대한 專門知識과 아울러 法制大意, 經濟大意, 國語, 國史 등 敎養 높은 人間育成에 필요한 敎育도 實施하고 있다. 이것은 장차의 速記人들을 위해서는 단순한 國家考試준비 以上の 意義를 가진다고 본다. 卽 人間은 職業人이고 家庭人이고 國民이고 社會人인 同時에 均衡이 잡힌 하나의 人間이어야 한다는데 着眼한 것이다.

이와같이 敎養科目을 速記科目에 加味하게 된 것은 敎養科目이 결코 專門學科에 대한 序論的 裝飾的인 것이 아니고 專門學科와 병행하여 또는 그 以上の 重要性을 가지고 自由敎育의 本質을 具備한 것이 되도록 함이 그 目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그러면 專門科目(速記學 또는 速記術)과 敎養科目은 其中 어느것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인가? 만일 專門科目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敎養科目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되게 된다.

假設的으로 만일 專門科目인 速記學 또는 速記術이 장차의 速記人을 위한 職業的機能의 發展을 目標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敎養科目은 反面에 廣意에 있어서의 人間敎養으로서 人間理想이라던가 人生目的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後者에 보다 많은 關心과 注意를 기울여 學習을 勸獎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異論이 나오게 된다.

美國의 敎育調查委員會 報告에 의하면 敎養敎育의 目的은 「一層 豐富한 生活 一層 剛健한 一層 自由스러운 社會秩序를 發展시키는데 있다」고 말하고 社會人으로서의 人間完成에 그 目的을 두고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人間은 本能的으로 慾求나 衝動을 느끼는 同時에 歷史的으로 蓄積된 많은 經驗을 學習하면서 社會的 文化的 행동 양식을 그들의 行動의 指標 또는 方法으로 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經驗은 하나의 장식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良識으로서 內面化되게 된다 이리하여 人間에 게는 Personality가 形成

되고 그리고 社會的 人間으로서의 正常的인 行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速記人들에게는 「歷史를 남긴다」고 하는 崇高하고 보람된 課業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重要大한 課業도 우리 개인의 Personality에 뿌리 박은 文化事業의 確立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엄숙한 事實을 우리는 尊重해야 될 줄로 믿는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環境의 나쁜 점만 強調하고 어떤 可能性이라던가, 좋고 슬기로운 점이 없는 것처럼 自處하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歷史에 무섭게 뿌리박은 우리의 生活姿勢가 은연중에 우리로 하여금 劣等意識을 갖게 하는데서 오는 歷史的 유산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自己가 處해있는 環境基準을 가지고 자기의 全 未來를 占치는 어리 석음을 저지른 者 또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現實을 逃避라고 하는 비열한 手段에 呼訴하기 以前에 자기의 敎養에 의해, 自己의 힘을 다하여 現實을 分析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精神的 亡命을 취할 것이 아니라 現實에 對應하는 知識人의 姿勢를 갖추므로서 人格도야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敎養을 가지고 無條件 美化하는게 옳다는 것은 아니다. 勿論 敎養은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 職能을 昇華시키기 위한 하나의 補完格이라고 말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敎養을 理解하는데도 균형이 있고 明暗이 그럴 듯해야 한다는 것이다. 敎養의 一側面에는 그 보다 더 큰 다른 側面이 있음을 忘却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

速記는 技術이라 했고 말 없는 歷史라

했다. 여기에는 無限한 可能性과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可能性 發見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潛在力 開發을 위한 豐요한 思想의 生活이 要求되게 되는 것이다.

足衣食知禮節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西歐에 가면 그들은 比較的 安定된 精神生活을 누리고 있다. 여기서 特히 부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思想의 豊요가 단지 物量的인 面을 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思想生活에 대하여 土着化된 價値觀을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그들은 보다 투명하고 直視하는 자세에서 現實의 여러가지 現實과 事物을 대하여 慧眼에 비치는 現實에 조금이라도 歪曲된 眞實이 있거나 正義롭지 못한 現實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은 이를 서슴없이 비판하고 否定하게 된다. 이것은 代策없는 現實否定이라든가 無責任한 思考가 아니라 肯定的이고 人間에게 有益한 價値基準에 근거를 두고 있는, 思想生活의 基盤 위에서만이 期待될 수 있는 그러한 人間行爲의 當然한 歸結인 것이다. 이러한 人間行爲가 生活化하고 土着化할때 비로소 거기에는 健全한 民主市民의 誕生을 보게 되는 것이다.

西歐諸國의 言語에 있어서 敎養이란 낱말의 語源을 한결같이 羅典語의 Culture란 말에 두고있고 이것이 바로 「耕作한다」 「栽培한다」라는 뜻으로서 敎養이란 결국(民主市民의) 知性의 발을 가꾸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음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 결코 우연한 一致로만 돌려 버릴수는 없는 일이다.

(國會速記士養成所法制大意講師)

펜실베니아 速記士協會의 速記 展示會

編輯者註：이 原稿는 美全國速記士協會(NSRA)機關誌

1 月號에 실린것을 轉載한 것입니다.

西部 펜실베니아, 西 버지니아와 오하이오의 3州로 구성된 실무교육협회는 1970年 10月 23, 24 양일간에 걸쳐 펜실베니아州 Pittsburgh Chatham Center에서 年例會議 및 展示會를 開催했다.

펜실베니아 速記士 協會는 Pittsburgh 速記士 들의 원조를 얻어 그의 敎育 委員會를 通하여 조그마한 展示場을 구입하여 될수있는한 빨리 수집될수있는 많은 速記 報道職業의 상징들을 전시하였다.

그중에는 <능률과 업적의 백지증명서>, <1分間에 200 單語를 쓸수있다는 學生들의 백지 증명서>, <ARTC의 인정백지 증명서>, <참피온과 경쟁자들의 그림과 국가 代表速記士들의 代表的인 發行物>과 펜실베니아에서 나온 <Outline>, New York의 <Transcript>, NSRA의 <職業敎育 시리즈>, Beny Horne의 <醫學用語의 體系的인 案內>, “필라델피아”의 실제 임상과정을 밝고있는 Paul Simone의 <時間의 일격>, R. Forrest Brenner의 <機械 速記의 理論>, 그리고 오하이오와 西 버지니아 CSR은 Julian J.Covel의 <電機녹음에 대한 法院記者의 見解>, David W. Louisell과 Maynard E.Pispig의 <미국 재판에 관한 절차의

변론의 축어적 기록의 의의>에 대한 미네소타 법률연구소로 부터의 논문, 國會의 기록中에 William Proxmire 鄉의 <電機녹음에 관한 소책자> 앨라스카 州의 미국법원기자 협회 부회장인 Samuel M. Blumberg Jr가 1969년 9월 29, 30. 10月 1日에 걸쳐 행해진 주 법원에서 <전기녹음제도의 개관기록>의 사본 New York의 사법회의 행정관과 행정 委員會의 國會議事進行의 음향기록 시험에 관한 <Staff report>의 사본, NSRA 速度 시험책과 NSRA의 口授연습 <tape> (녹음기 사용에 따라 전시된 5개의 전문적인 특수 tape와 성적과 능률도의 test tape, 경쟁용 tape), 大學 reporting Course를 爲한代表的 敎과과정, 속기 구술자에 依해 나타나는 代表的 速記의 주석 높은 삼각차원에서의 새로운 속기기계 <making record>의 사본, KSRA의 능률및 성적 증명위원회 규칙의 사본 등이 있다.

이 展示場을 찾는 방문객에의 보급을 위해 인정된 기자 훈련 위원회의 문헌의 사본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문헌이란 인가를 맡은 學校의 최소한도의 기준, 인정되는 절차, 배우는 과정에 있어 그 조절하는 사람에 의해 썬어질 개인자

료형태와 교과서, NSRA에 의하여 인정된 학교의 일람과 NSRA의 倫理典의 사본 등이 있다.

一列로된 以上の 것들은 table에 陣列되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시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다. Table 가운데에는 한쪽은 펜실베니아 속기사 협회, 다른쪽에는 국가代表速記士 協會라고 새겨진 sign이 있었다. 700名의 全體 등록자 중에서 방문객은 300名으로 추산되었고, 우연히 들어온 사람도 상당수였다.

상당히 많은 수의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기자들이 직접 설명해주기를 원했고 또 다른 선생들은 NSRA의 Professional Series의 字本을 어디서 구입할수있는가 하고 묻기도 하고, 참석자들을 놀라지 않도록 最上의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몇명의 직업학교교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法院記錄은 속기보다 더욱 빠른 것을 必要로 한다는것과 그들에게는 자료와 속기술의 실질적이고 빠른 교육이 주어져야 함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이것은 이러한 경향에 따른 대중과 기술학교에서의 교육의 必要가 지적되어지고 記者는 단지 받아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게 하는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教育委員會는 우리의 職業에 공공성을 부여하며 이런 모험에서 몇몇 신설학교에

서 그 씨가 뿌려졌고 지방단체, 대학들 사이에서 더큰 관심이 일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이 事業을 돕고, 전시회의 일을 돌보아준 會長 Ben Schuman과 Joseph Karlovits, Edward Aul, Richard Powers, Jordan Lilienthal, Ruby Palmer Frank Ianmore와 Sign을 만들어 주고 사진을 찍어준 Albert Morwite와 녹음기 擧取 tape를 빌려준 Carol Schuff에게 特別한 사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우리의 時代를 생생히 그리기 爲하여 夙願의 현실에서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여기에 속기 보도 분야는 결코 배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우리의 대중 및 사법부에 대한 像을 향상 하도록 하는 努力에 있어 熱心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또한 단지 낡은 관행과 타성과 같은 존재만을 파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체제도 갖추고 있지 않은 실무세계에 있어서 희생이 될것을 알게될 것이다.」

펜실베니아 속기사 연합 교육위원회

Martin A. Katz

George L. Levine



第2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지난 8月28日 30日 이틀에 걸쳐 第2回 全國 國語 英語速記 資格檢定試驗이 本協會指定養成機關인 東邦速記學院과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各各 實施되었다.

이번 第2回 資格檢定試驗 總應試者數는 91名 (男 44명 · 女 47명)으로서 國語 · 英語速記別로 보면

國語速記 : 총 61名(男 36명 : 女 25명)에 대하여

議會法式 34名	東邦法式 24名
逸波法式 1名	高麗法式 1名
南天法式 1名	

으로 되어 있으며 級數別로는

1級	14名	2級	1名
3級	5名	4級	2名
5級	19名	6級	15名
7級	5名		

으로 되어 있다.

英語速記 : 총 30名(男 8명 : 女 22명)으로서 全員 Gregg法式이며 級數別로보면

4級	1名	5級	1名
6級	5名	7級	9名
8級	14名		

으로 되어 1回때에 비해 上位級數進出이 눈에 띄고 있으며 특히 女性의 大學進出이 注目할만 하다.

採點結果 한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은 英語速記의 경우는 hearing미스로 다소 誤譯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水準級을 이루었으나 國語速記의 경우는 多少 問題點이 發見되었다.

即 31日 施行한 第2回 速記競技大會成績에 비해 너무 低調한 成績이었다는 點이다. 이는 1級應試者의 多數를 占하고 있는 國會速記士(71年 採用된者)들이 여름휴가에서 갓돌아온 탓으로 精神的으로 弛緩 · 興奮된 遠因과, 資格檢定에 臨하는 應試者 스스로의 姿勢문제가 近因으로서 緣由된 結果가 아닌가 分析된다.

특히 이 受驗姿勢문제에 대해서는 日後 따로이 論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이 <檢定>이 實質的인 速記士 登龍門으로서의 權威를 세우는 法的 뒷받침이 切實히 要請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法的 뒷받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速記의 項上인 <檢定> 1·2級의 경우 速記競技大會의 正 · 準級에 併合하여 事實上的 實效를 거두는 方向으로 運營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이번 第2回 資格檢定 1級 시험에 있어서 國會速記課의 全在坤(東邦)君이가 장 優秀한 成績으로合格되었다.

合 格 者

(第2回 資格檢定試驗)

○ 國語速記合格者

1級 : 全在坤(東邦)	安喜榮(議會)	金致元(逸波)
鄭盈澤(東邦)	金仙玉(議會)	車公順(議會)
任明心(議會)	李世喆(議會)	(이상 8名)
2級 : 李貞順(東邦)	韓相九(議會)	金彩榮(議會)
朴順必(議會)		(이상 4名)
3級 : 박기인(東邦)	천대숙(東邦)	(이상 2名)
4級 : 合格者없음		
5級 : 고석광(議會)	이영애(議會)	김은주(議會)
김은숙(議會)	정혜심(議會)	유승관(議會)
차낙호(議會)	김동수(議會)	최예숙(議會)
이승철(議會)	이정숙(議會)	박용천(議會)
		(이상 12名)
6級 : 김정애(議會)	김성래(議會)	이정규(議會)
		(이상 3名)
7級 : 고혜선(議會)	지석찬(東邦)	서순덕(議會)
이보영(議會)	이한희(東邦)	안진석(議會)
권오운(議會)	이병국(東邦)	(이상 8名)
8級 : 강후상(議會)		(이상 1名)

○ 英語速記合格者

4級 : 김진두	(이상 1名)
5級 : 나정자	(이상 1名)
6級 : 송수자·이천우·박희주·최정희	(이상 4名)
7級 : 송기현·한경혜	(이상 2名)
8級 : 최희옥·조윤금·이경숙·김영민·박영조	
오인숙·유상철·최영철·김도희·김석문	
강순원·손경희	(이상 12名)

第2回 全國速記競技大會

第2回 全國速記競技大會가 지난 8月 31日 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施行되었는데 正級 16名 準級 11名 총 27名の 出戰으로 불꽃튀는 白熱戰을 벌였다. 경기方法으로는 正級の 경우 演說體 分當 320字速의 5分 論說體 分當 300字速의 5分으로 翻文 10倍.

準級の 경우 演說體 分當 300字速의 5分, 論說體 分當 280字速의 5分으로 翻文 時間 10倍로서 競技가 進行되었다.

한편 경기出戰者의 出身法式을 체크해

보면

正 級

議會法式	11名
逸波法式	3名
高麗法式	1名
東邦法式	1名

準 級

東邦法式	7名
議會法式	4名

으로 되어있으며 入賞者名單은 다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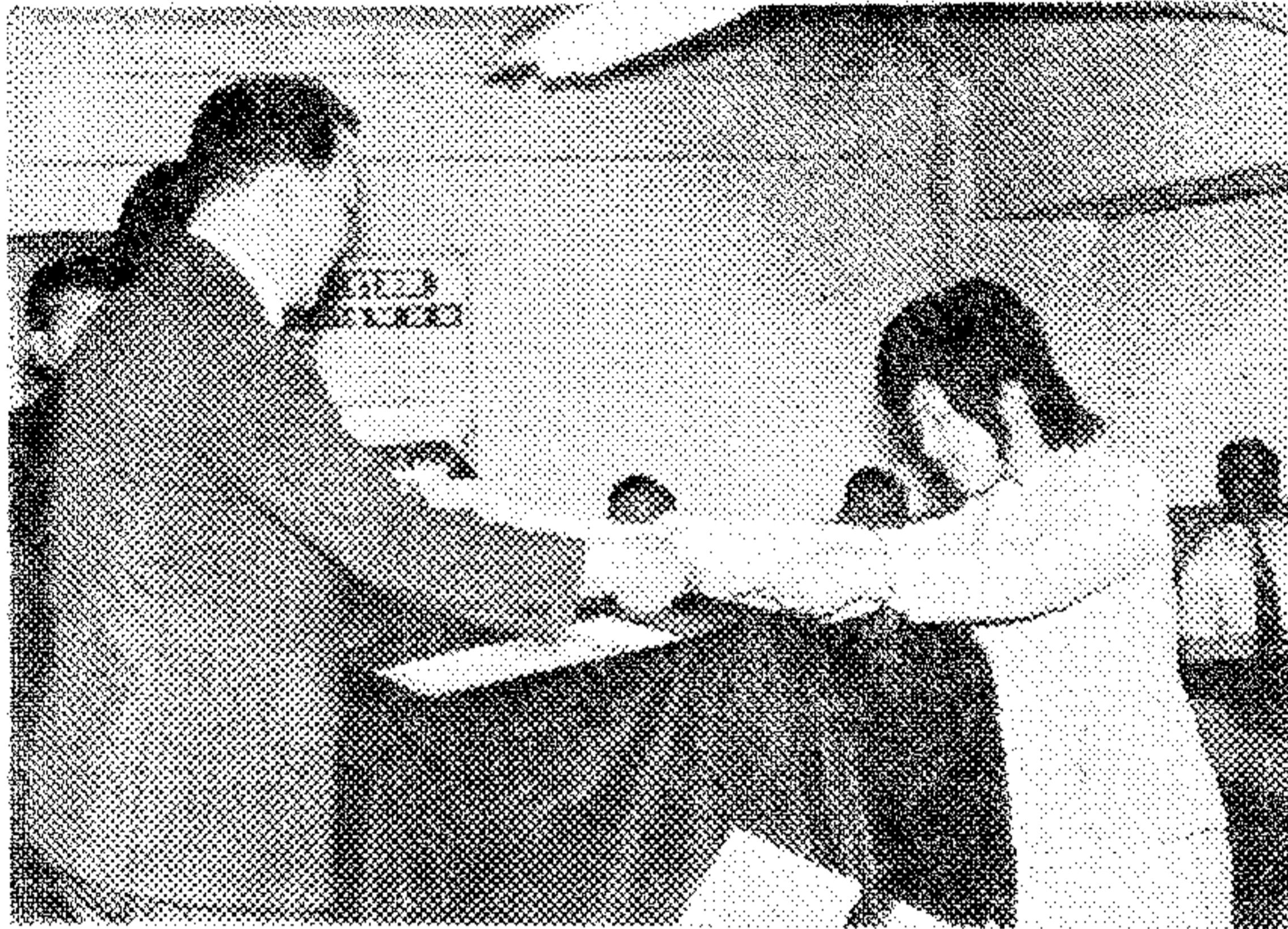
같다.

入 賞 者

正	等	姓 名	法式	誤字	正確度	賞 狀	副 賞
正 級	1	金 仙 玉	議會	28	99%	國會議長賞	상패 및 금반지
	2	高 隆 繁	逸波	39	99	國會事務總 長賞	상패 및 금반지
	3	安 喜 榮	議會	62	98	協會會長賞	상패 및 금반지
準 級	1	鄭 盈 澤	東邦	115	96	國會議長賞	상패 및 만년필
	2	李 貞 順	東邦	121	96	國會事務總 長賞	상패 및 만년필
	3	金 敬 海	議會	196	93	協會會長賞	상패 및 만년필

이 榮光을 ……

金 仙 玉
 <正級 一等>



될대로 되라는 편리한
 뱃장탓이었는지 의외로
 어렵지않게 쓰고나니 장
 려상정도나 기대할까 하
 는 간사스런 마음, 끝나
 고보니 道士급 (?)들
 모두도 다 잘한 모양,
 다시 그 기대마저 포기
 할수 밖에… 그런데 이
 렇게 선배님들께 감히
 외람되게도 영광스러운
 수상이라니—.

휴가후유증으로 멍청해있던날.

자꾸 그날의 엉성한 우리의 캠프화이어
 가 생각나 휴가의 아쉬움만 되새기던날.
 많은 것들의 상념이 그 초점을 찾지못한
 채 자격검정 시험과 경기대회에 임해야하
 는 처지가 되었다.

첫날 자격검정시험은 미처 손을 풀지도
 못한채, 차라리 낙제에 가까운 점수가 되
 었는지 걱정할 정도였다.

다음날의 경기대회엔 감히 수상은 바라
 지도 않았고 채점불능의 상태에서서만 벗어
 났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전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던 나약한
 군상들의 변명을「영」과함께 조소했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날의 나는 그 변명을 합
 리화 시키지 않으면 안될 서글픈 운명
 (?)에 놓여있었다.

아무래도 일진수가 좋았다고 밖에 볼수
 없다.

난 등산을 할때에도 정상에 서면, 남들
 은 말할수없는 후련함을 느낀다는데 정상
 의 일보전에선 마음벅참을 느끼다가도 딱
 상 정상엘 오르고나면 허탈해지던 마음
 이다.

그것은 잘못 되어진 성격탓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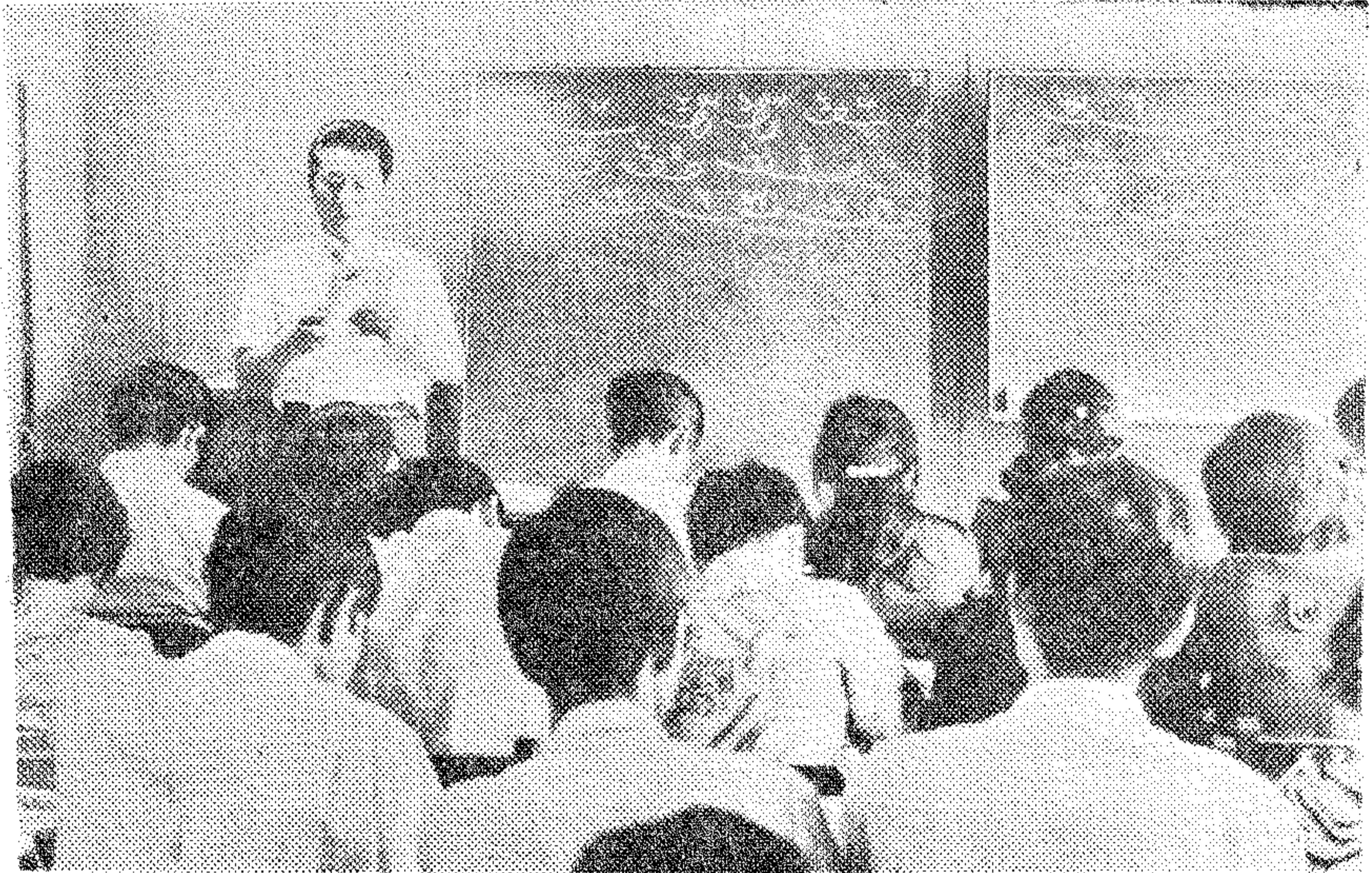
지금의 마음도 이렇게 허탈해지는건 어
 쥘수 없는 나의 고백이다.

그것은 평범한 대열에서 소외되어지는
 듯한 열려에서일까—.

난 언제나 상을 탈때마다 그 무게만큼
 의 고독을 씹는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탄 상장
 속엔 그에 비례하여 그 만큼의 고독이 쌓
 여있다. <22페이지로 계속>

第9回 夏季無料 速記講習



本協會 今年度 3/4分期事業의 하나인 第9回 夏季 無料速記講習이 지난 7月19日 부터 8月 7日까지 3週間에 걸쳐 實施되었다.

무덥고 異常氣溫이 連續되는 날씨인데도 총 573名의 受講生이 몰려들어 좁은講義室을 입추의 여지없이 메운 이번講習은 高麗法式과 東邦法式 그리고 Gregg法式을 採擇 講習했다.

총 573名의 構成比를 보면 國語速記440名, 英語速記 133名이며 男子 287名(국어 227명, 영어 60명) 女子 286名(국어 213명 영어 73명)으로서 男女가 各各 完全50%씩을 차지하고 있어 注目을 끌었으며,

學歷으론 高卒 52%, 大卒 및 在學이 40% 高在 8%, 年令差를 보면 몇사람의 高令者와 年少者가 있었으나 90%이상이 젊은層으로서 바캉스 씨즌인데도 이 나라 애리뜨들의 熱便學究熱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3週間の 全課程을 完全 履修한 修了生은 國語速記에 136名(30.9%) 英語速記에 76名(57.1%)으로서 比較的 날씨탓인지 低調한 편이었다.

協會로서는 修了生中 몇분을 초빙하여 無料講習에 對한 診斷(座談會)을 해보았다. 끝으로 이번講習을 擔當해주신 柳智永, 韓鍾烈, 高用培, 李康賢, 盧英民氏등 여러 講師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속기 강습 수강기

김 정 응

7월 중순 나는 신문에서 속기강습에 대한 광고를 보았다. 제 9회 속기특강인데 대한속기협회가 주관이었다. 3주간 강의의 수강료는 공짜였다. 나는 서둘러 등록을 마쳤다. 한창 더울때 남들 다 가는 바캉스여행은 못갈 팔자고 시간은 있으니 이때 속기나 공짜로 배워보자는 심사로.

첫날 약간 지각해 강습장소인 고려빌딩이라는데를 닿았다. 우선 시원한 에어컨시설이어서 다행이었다. 지정해준 교실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앉을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반의 수강생이 약 7,80명은 될까. 역시 공짜는 좋은 거로 구나. 나는 뒷자리틈에 끼어 들었다. 둘러보니 주로 젊은 남녀 학생층 여자들이 의외로 많이 되는 것은 아마 호기심이 많아서겠지. 교단에 서 계신 선생님(韓鍾烈)은 강습소애나 서 계시기엔 풍채가 너무 좋은 양반이었다. 수강증을 대조해보이곤 우리는 속기교재를 받았다. 난생 처음 대하는 속기라는 이 「진비해」 보이는 기술의 첫장을 펴들자 눈에 설은 선과 원과 점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들어 내 눈은 단번에 몽롱해졌다. 주의해서 들여다 보았지만 납득이 되지않았다. 속기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해보면 되겠지 하는 최초의 자신은 싹 가시고 어쩔

지 더운 때 잘못 걸렸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럭저럭 첫날 수강은 막연한대로 넘어갔다.

「가」는 옆으로 10mm를 쪽긋는 것, 「나」는 밑으로 쳐지고 「다」는 요리 쪽 그어, 「라」는 굽은 허리 「마」는 위로 쳐지고 「바」는 누운 허리 등등, 가나다라마바사아자, 할 수 있냐 기왕 시작한 것 해보는 데까지 해볼수밖에……. 가나다라마바사아자. 밑으로 빼쳐서 「ㄱ」받침 쪽 위로 쳐져 「ㄴ」밑으로 「ㄷ」슬쩍 옆으로 「ㄹ」등등, 각 갈 감 갑 갓. 이렇게 첫주가 지나갔다.

—일동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각하께서 입장하실 때는 기립하여 주시고—, 바로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국회 속기록은 신문기사로도 기름 냄새가 가지지 않았을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기본문자도 채 못익힌 속기 솜씨로 받아 쓴다고 속기 아닌 「완기」를 해댔다.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안지겠느냐 진다면 언제 어떻게 지고 안진다면 왜 안지느냐>때마침 국회에까지 번진 사법부 파동으로 우리의 교재는 신문에서도 볼 수 없는 스타일 있는

문장으로 가득 차있었으나 아뿔사 손은 자꾸 헛나가고 열심히 그려놓은 내 글씨를 내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그리고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문법, 생략형 용법등등. 이렇게 들쭉 주가 지나갔다.

연중 가장 맹렬한 폭서가 쏟아지는 속에서 우리는 시원한 실내에 앉아 서늘함을 느끼며 수강 3주째를 맞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언제 그렇게 사라져 버렸는지 교실을 꽉 메우던 인구는 반에서 또 그 반도 안되어 보인다. 쏟아지는 새로운 용법들에 질려 그만두었나 또는 때가 되니 보따리 싸들고 해변으로들 갔나 그럼 올데갈데 없는 친구들만 더위를 피해 이곳으로 모여 들었나. 아무튼 우리 남은 동포들은 끝까지 버티고 앉아 서를 게나마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랄한 대정부 질의를 따라 「아마추어」속기사 흥매를 계속했다. 이런 중에 속기 공부는 물론 국회의 속기록에서, 살아있는 민주

주의의 생생한 단면을 느껴본 것은 나만의 감상일까. 그럭저럭 종강은 닥아오고 우리는 마지막 「시험」을 보았다. 한 두명 잘 한 사람을 뽑아 상을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열심히 써 냈다. 성의를 봐서라도 상 하나 줘주겠지.

오늘은 종강일이다. 수강증을 손에 쥐면 제 9회 속기특강도 「휘날려」다. 지루한 3주간이었지만 끝난다니 섭섭해 지고 또 속기가 무언지 이제야 좀 알것 같은데 끝나 버리다니 무언가 미련이 남는다. 3주간 열심히 하노라 했는데 1분당 60자도 못쓰는 이 실력으로 무엇을 할꼬? 참 그보다 이만큼이나마 속기를 알고 또한 여름에 이만한 보람을 안겨준 대한 속기협회 당국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잊을 뻔했다.

아울러 韓선생님께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실력을 쌓아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인사드려야겠다.

1971. 8. 7



<19페이지에서 계속>

이번의 상은 가장 큰 내 고독의 반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만큼한 기쁨이 있다는 것도 숨길수 없는 감정이다.

수상소감은 너무너무 고독하다. 따라서 그 고독만큼 감당못할 정도도 기쁠수도 있다. (극과 극은 일맥상통한다던가?) 심각하지 않게. 그러나 경박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자세가 나는 좋다.

솔직한 감정의 표현은 더욱 좋다.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 자세는 말할 수 없이 좋다.

이젠 기쁨속에서 기쁨을 찾을줄 아는 순수함을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 영광을 발판으로 하여 더욱 힘찬노력을 해야겠다.

이 영광을 마련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길러주신 존경하는 분들과 내 멀리,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감사사를 드린다. 이 영광을 그리고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第 9 回 速記講習을 마치고

— 參 席 者 —

- | | |
|-----------------|-----------------|
| 柳智永 (高麗法式講師) | 朴春姬 (梨大附屬病院 22) |
| 李康賢 (東邦法式講師) | 金仁淑 (大學生 20) |
| 盧英民 (英語速記講師) | 都在旋 (記者 31) |
| 白文基 (大學生 21) | |
| 許丙國 (大學生 29) | 安仁榮 (理事長) |
| 金在祐 (事業 41) | 申世華 (事業部長) |
| 趙亨心 (종로 보건소 24) | 金仁寧 (財政部長) |
| 陰芮環 (大學生 21) | |

司會 : 梁 源 龍 (宣傳部長)

速記 : 金 致 元 · 金 仙 玉 記者

日時 1971年 8月7日(土) 12시

場所 中興樓

安仁榮(理事長) :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이에 3주간의 第 9回 무료 속기 강습을 마치고 그동안 직접 강의를 맡으신 강사 선생님과 수강생 중 몇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보다 효율적인 강습의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대한속기협회 기본사업의 하나로써 9회를 거쳐오는 동안 여러가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이나 또는 강의를 끝까지 듣고 이제 速記家族의 一員이 되신 수강생 여러분께서 기탄없는조

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바캉스에 약해

司會 : 그럼 먼저 사업부장께서 이번 강습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申世華(事業部長) : 이번 제9회 하계 속기무료강습 수강 총 인원은 573명이었습니다. 그중 국어 속기가 440명 영어 속기가 133명, 국어속기중 고려법식이 361명 동방법식이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성비를 보면 남자가 287명(국어 227명 영어 60명) 여자가 286명(국어 213명 영어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관계를 보면 고졸이 52% 대학졸 또는 재학이 40% 중고학생이 8%로서 예년과 같

이 중고학생의 일부참여도 엿볼수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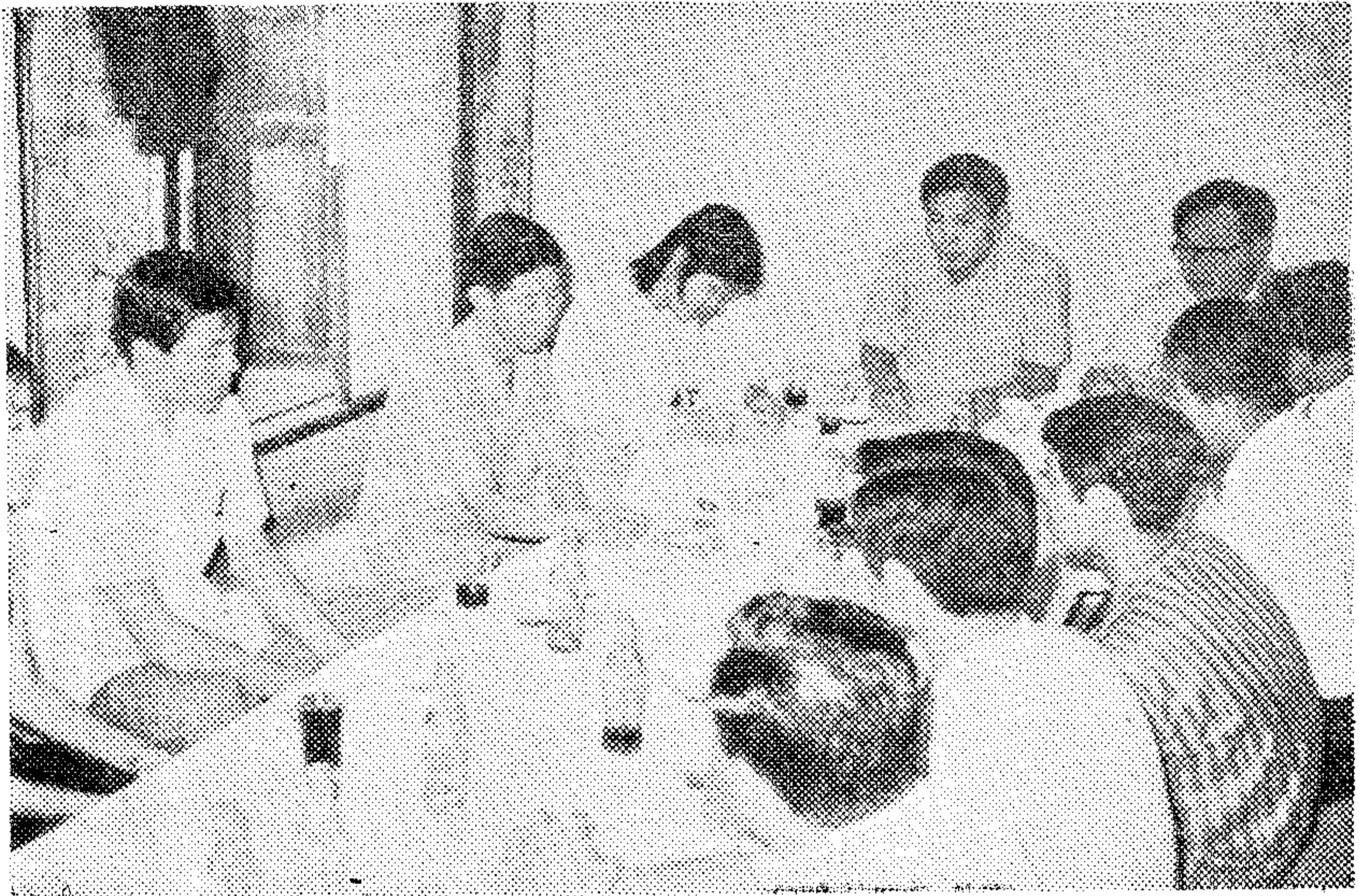
한편 573명의 수강생중 끝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친 인원은 국어가 136명(30.9%) 영어가 76명(57.14%)으로 비교적 저조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갑자기 일고 있는 바캉스 「붐」에 연유된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司會：例年の 경우를 보아도 冬季강습보다는 夏季 강습의 경우 낙오자가 많은 경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은이들

여자가 더 強해

李康賢：우리 東邦의 경우 냉방시설이 불비해 몇대의 선풍기가 종일 움직여도 찌는듯한 더위였는데 남, 녀 수강생들의 수강자세는 정말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더위를 참아내는 인내력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풍기 앞자리를 차지한 남자들은 썩썩거리며 들락날락하는데 선풍기 근처도 못간 아가씨들은 끝까지 태연하게 수강하고 있었어요.



에겐 바다와 山의 유혹엔 약한 모양이에요.

다음에는 그동안 더운 날씨에 강의를 수행하느라고 애써주신 강사 선생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3주간의 강습기간 중 그 혼한 바캉스도 외면한채 끝까지 강습에 열중한 수강생들의 수강 자세라고 할까 이런 점에 대해 강사 선생께서 한 말씀.....

盧英民：여성의 복장자체가 남성 보더시원한 복장이 아니겠어요. (웃음)

李康賢：그리고 대학1년생의 아들과 함께 나온 어머니 수강생이 있었는데 아들에 비해 어머니의 지구력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司會：母子速記士가 탄생될뻔 했군요.

눈물이 핑 돌아

盧英民：영어 속기는 매년 남자보다도

수강 동기

여자가 많았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남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3대 1인데 이번에는 거의 과반수를 차지했어요. 영문속기에 대한 인식도가 남자에게도 많이 높아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柳智永 : 저는 오늘 종강식을 마치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의를 말씀으로써 절실히 느낀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강습기간이 3주간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수강생이 조금 눈이 뜨일까하는 정도가 되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에 못내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오늘 종강식을 마치고 나서 강의실내의 분위기를보고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종강식이 끝나도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숙연하고 침통하면서 아주 섭섭하기 짝이없는 표정들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웃음)

李康賢 : 동해물가나 부르고 끝나지..... 저는 1회부터 9회까지를 빼놓지 않고 쪽 강의를 해왔는데 종강때마다 느낀점은 우리가 정해진 사업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겠지만 좀더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의욕이 언제나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마찬가지로요.

司會 : 수강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수강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계기에 대해서...

都在旋 : 먼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직업이 신문 기자이기때문에 직업상 필요해서 배웠습니다.

司會 : 이번 수강자중 가장 고령자이신 **金在祐**씨께서는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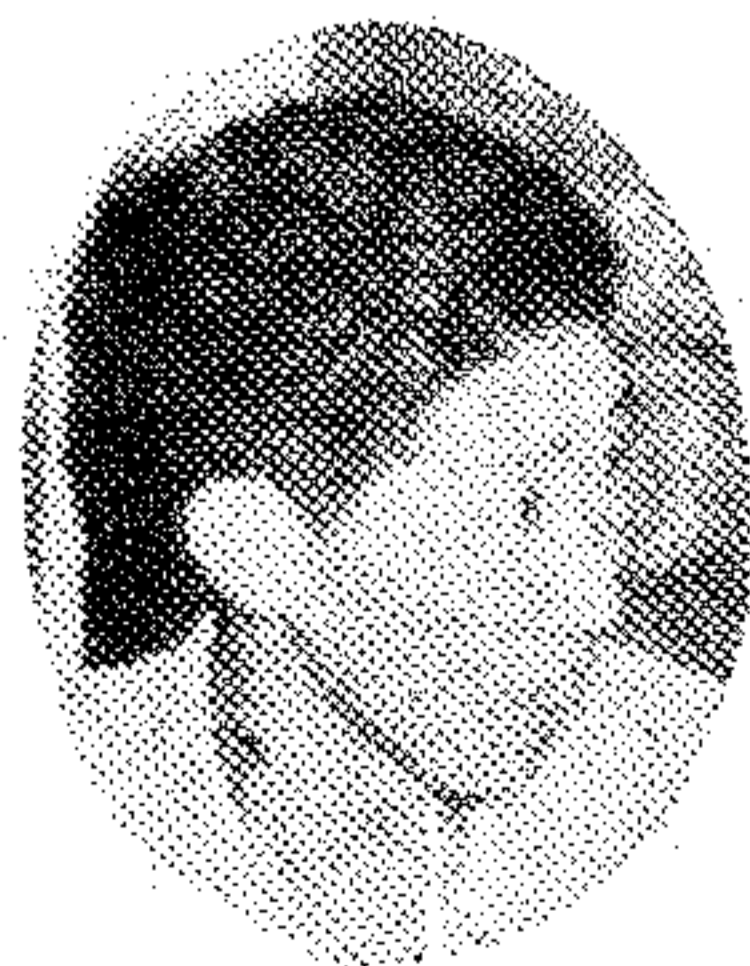
金在祐 : 지금부터 16년전 대학1년때입니다. 종로 인사동에 있는 한국 속기학원에서 속기를 배웠습니다. 그당시의 동기들은 신문사 통신사에 지금 논설위원 정치부장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사정으로 마스터를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차제에 완전히는 못하지만 나이에 구애됨이 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에서 다시 뛰어 들어 왔습니다. (웃음)

陰芮環 : 저는 영어 속기를 강습받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빠 친구분에게서 귀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결혼 전후를 가리지 않고 직업을 택할 경우 보수도 좋고 국제회의 등 비교적 출세(?)할수도 있다고 해서.....(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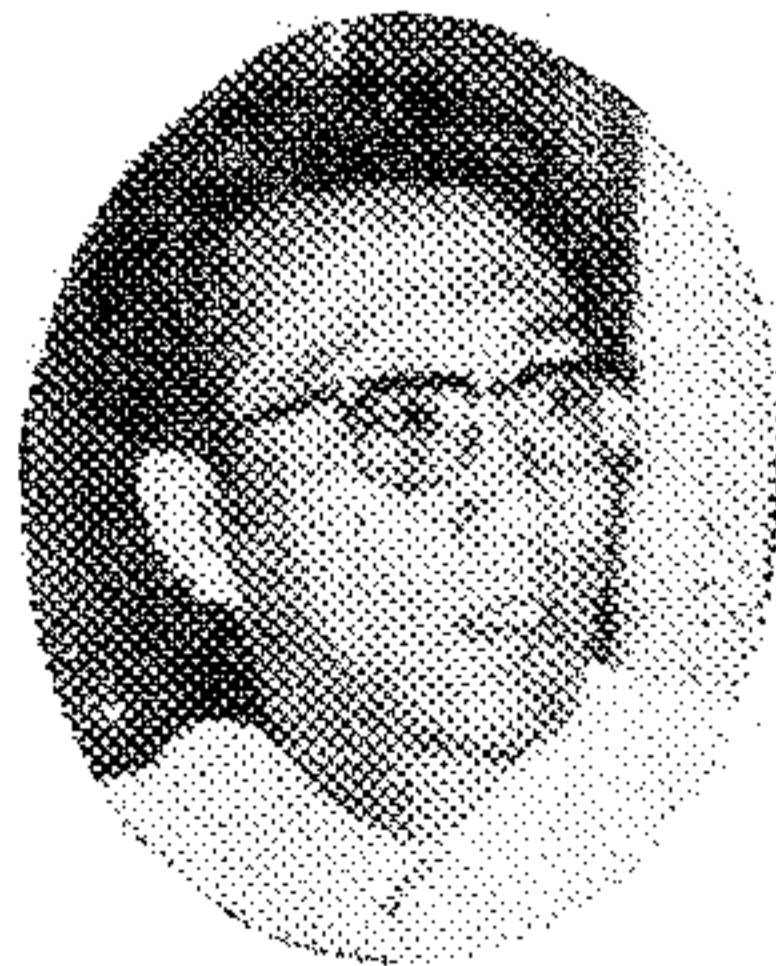
司會 : 좋은 기회에 잘 판단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부 UNDP에서 근무



柳智永 강사



李康賢 강사



盧英民 강사



白文基씨

무하는 鄭모양이 계시지만 이분은 수다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말씀대로 출세가도에 있습니다. (웃음)

陰芮璟 :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언을……

金仁淑 : 저는 신문광고를 보고 강습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남기고 싶어서 속기를 배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司會 : 속기를 배우기 전과 배운후의 속기에 관한 인식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白文基 : 속기라는 얘기를 귀담아듣기는 최근의 일입니다. 과연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을까? 물론 동그라미나 막대기 같은 글자로 쓴다는 것은 추측했지만 그 기능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많은 분야에서 필요한 것 같고 또 빨리 쓸수있을 것 같습니다. 大學이 개강되면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할 작정입니다.

趙亨心 : 제 직업은 간호원이라서 속기와는 접촉을 못했습시다하는 학교의 친구가 속기사로 있고 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고 보니까 그런대로 일기장이나 남이 알아서는 안될때

모정도는 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필요할 것 같아요.

司會 : 배우고 나니까 속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지?

美國에로의 길

朴春姬 : 강습 받기 전에는 영어 속기가 어떻게 된건지 몰랐는데 3주간 받고 나니까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앞으로 미국엘 꼭 가리라는 생각에서 준비 단계로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지만 연습하고 회화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또 盧선생님의 교수방법이 좋아서 한번도 빠지지 않았읍니다.

司會 : 굉장히 미남이시라서……(웃음)

朴春姬 : 저는 그런데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웃음)

司會 : 배우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너무 어려워

朴春姬 :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집에와서 연습을 못 했어요. 진도를 쫓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적성에만 맞는다면 계속하면 가능할듯 합니다.

許丙國 : 저는 국어 속기하고 영어 속기



許丙國씨



金在祐씨



趙亨心씨



陰芮璟씨

를 다 했습니다. 前에 저의 자형이 부산시 의회에 속기사로 있었던 연유로 속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어 속기는 기본문자가 끝나고 받침 활용하는데가 어려웠습니다. 예습을 했으면 나았을텐데 예습은 시간상 도저히 할수없고 복습이나 잘해서 나갔지만 매일 매일의 진도에 진땀 뺐습니다.

金在祐 : 처음에는 속기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달겨 들기는 했으나 기본문자만 가지고 다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침확대 활용이라던가 특정 약자 변자 이렇게 수다하게 나오니까 약간만 비뚤어져도 다른 글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해서 너무 복잡성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좀 나이 많은 탓이기는 합니다마는 젊은사람들 하는데 나이가 관계가 되겠느냐,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집에서 복습도 하고 예습까지도 해나가 봤어요. 했는데 나중에 여러가지 기법이 많이 나오니까 벅차서 예습커녕 복습도 못해서 밤샘을 한적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밤샘을 할때 집의식구가 같이 잠을 안자고 계란후라이를 해준다. 밤참을 해준다. 아주 고마웠습니다 (웃음) 강의 시간에 나오면 柳선생님께서 실무면에서 있었던 일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까지 의욕을 북돋아 주는

데 더욱 용기를 내 가지고 두번 밤샘을해봤습니다마는 세번째는 건강이 안되어서 밤샘을 못했습니다. (웃음)

司會 : 다음에 앞으로 요망 사항이라든가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망 사항

陰芮環 : 강습기간이 3주간이면 너무 짧은것 같으니 앞으로 좀 기간을 늘려 주었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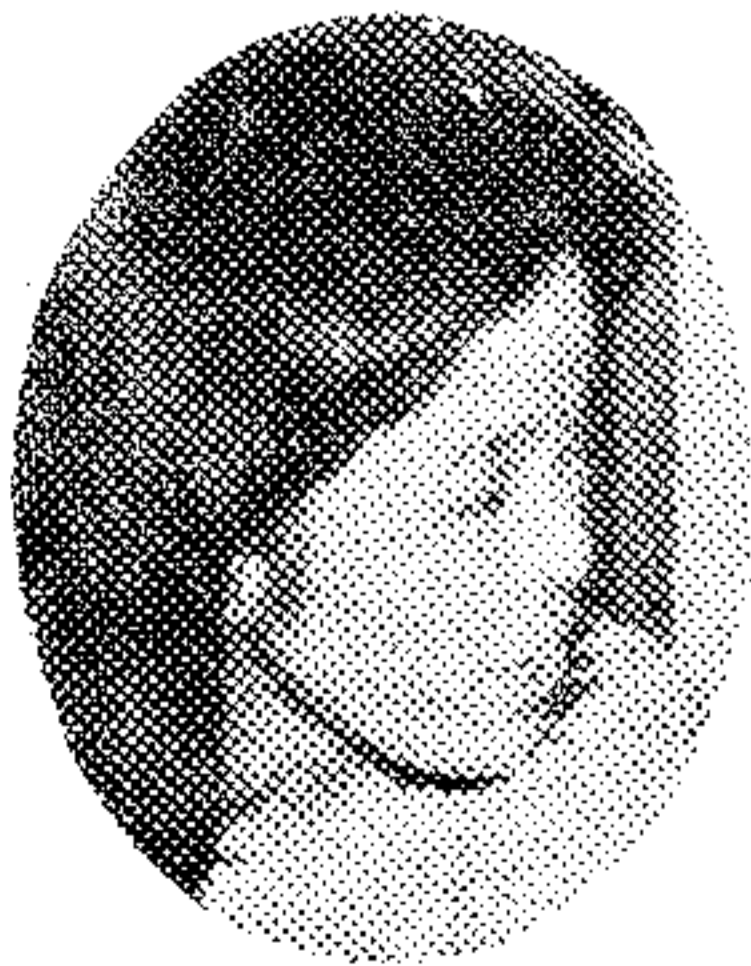
都在旋 : 전문 속기가 아닌 보급강습안 이상 3주간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완전 속기를 해야겠다는 사람은 전문적인 다른 길을 택해야 겠죠.

白文基 : 강의 내용을 3주간 단기강습용으로 좀더 쉽게 익힐수 있도록 해주었으면합니다.

司會 : 지금 배우신 것으로 여러분의 팔기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陰芮環 :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따라가기가 좀 벅찼어요.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되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계속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시 했어요.

金在祐 : 현재로서는 너무 벅찬 감이있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것을 내다보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



朴春姬씨



金仁淑씨



都在旋씨

니다. 본인이 앞으로 계속 복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마는……

司會 : 앞으로 더 배울 생각은 없습니까?

趙亨心 : 시간여유가 있으면……

金仁淑 : 계속하겠습니다.

白文基 :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는군요.

司會 :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강의 중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柳智永 : 강의중 피부로 느낀 것인데 3주 동안에는 기본 문자 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기본문자만 가지고 마칠수는 없고 무리하지만 3개월정도의 교재로 3주간에 해치울려니 참 벅찼습니다.

盧英民 : 더운 날씨에 넥타이를 매고 강의 하기에 힘이 들더군요. 여자분들이 많아 벗어던져 버릴수도 없고……

모임이 이어졌으면

李康賢 : 앞으로의 강습은 강습대로 진도를 나가면서 수련장 같은 식으로 매일 매일 숙제를 시켜 평가를 받도록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습이 끝나면 그대로 모두 흩어져 버리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계속 집에서 속기연습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날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기회에 서로의 실력을 겨루어 보고 복습해 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金在祐 : 그것 참 좋은 안입니다.

司會 : 지루한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速) (記) (席)

○ 지난 8월31일 조선포텔 「그랜드·블룸」에서 안보 「세미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국회 ××위원회 담당 속기직원들을 동원시켜 직원들의 불평을 샀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분이 ××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사무처 일도 아닌 사사로운 회의에 직원들이 불려다닐 필요가 있겠냐는 것. 그래서 담당자가 처음엔 거절을 했으나 「이런 일에도 협조를 양기냐」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할 수 없었다고. 협조라는 것이 밀의 사람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언제 직원들의 애로에는 눈하나 깜빡않던 분들이 협조 운운하니가 어울리지 않더라는 얘기. 더우기 ××위원회에서는 회의장의 속기사석을 유례없이 위원석과 동떨어진 구석에 몰아넣어 버렸기 때문에 청취불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기사가 귀찮은 존재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

○ 제 2회 속기경기대회에서는 창출된지 일천한 신진법식 출신의 신진 속기사들이 에각을 드러내어 화제.

기존법식의 총아들이 패퇴하여 장탄식하는 바람에 선배들을 물리친 병아리들은 상받기가 미안하다는 듯 기쁨을 감춰……

○ 국회 속기과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자 이러한 추세에 대비, 여성들의 신진대사에 원활을 기하고 직장의 꽃으로서 생기를 잃지 않게 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금년부터 채용된 아가씨들에게 「결혼과 동시에 그 직을 사임한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무엇인가 숨통이 터지는것 같기도 한데……

開 拓

朴 永 萬

<警察專門學校 速記學教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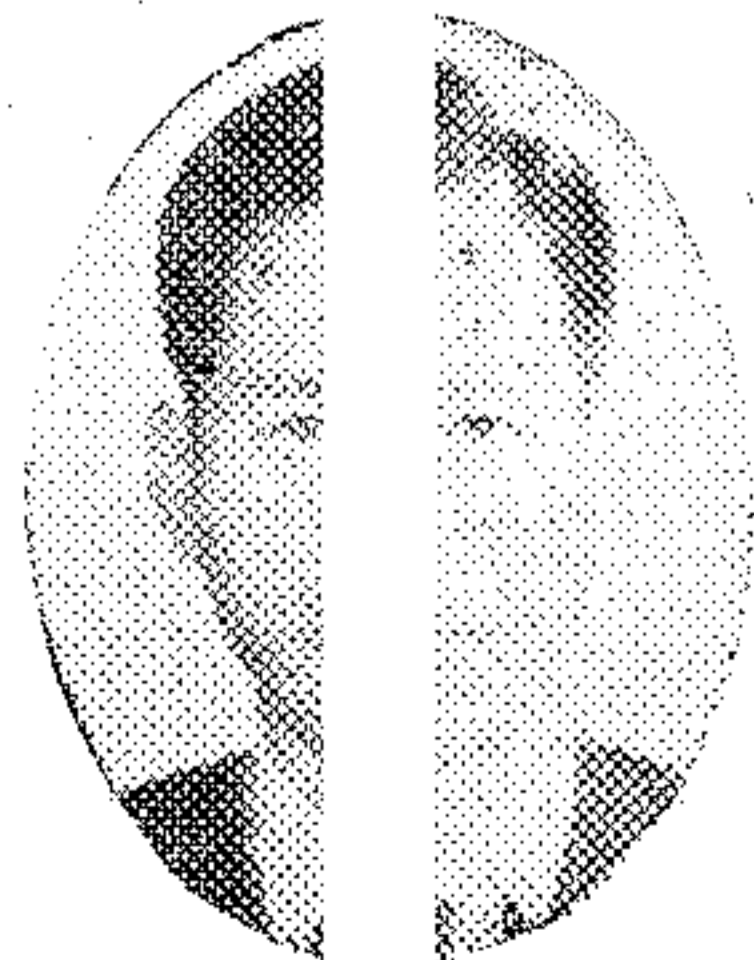
教育이란 「經驗을 통하여 人間の 行動에 바람직한 變化를 가져 오고저 하는 事業」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公務員教育이란 어딘가가 좀 色다른點이 있는듯 하다. 階級과 職務에 符合하게 教育한다던가 特殊目的을 設定하여 教育한다는 등 뿐만 아니라 被教育者의 精神姿勢까지도 그러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으레 教育을 받으러 가면 知識技術 또는 價値觀 態度 등에 바람직한 變化를 가져오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自己의 被害意識에 사로잡혀 修了날자 까지의 밥 그릇만 計算하는 境遇가 많다. 더구나 教育課程과 內容이 沈滯되어 있고 被教育者의 思考方式 마저 이러하면 教育目的은 達成하기 힘들다. 이러한 與件하에서 우리 警察은 關係官의 着眼으로 活力과 教育意慾을 북돋을 수 있는 速記學을 今年부터 教科目으로 넣어 教育하고 있다. 實로 速記學은 警察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警察에서는 보고 듣고 느낀것과 申告받은 것을 處理하고 報告하는 일이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多幸히 警察에서는 達筆家가 많아 業務가 유감없이 發揮되기는 했다. 내가 처음 警察에 들어가 某警察署에 配置되었을때 末端巡警이 쓰는 被疑者 審問調書의 글씨가 어찌나 빠르면서도 잘 쓰는지 놀랐다. 그當時 나는 언제나 저 程度 아니 그切半程度나 쓰게

될까하는 劣等感에 젖은 일이 있었다. 現在에도一線 경찰서에서 많은 達筆家가 事務處理에 큰 役割을 하고 있는點은 자랑스런 일이다. 그러나 記錄速度에 있어서도 高速時代에 자랑할수 있을까? 나는 그 答을 “No”라고 해야할 것이다. 率直히 말해서 警察에서는 速記에 關한限 幼稚園生이다. 이러한 現實에서 速記教育이 처음 始作되니 그 必要性有無에 對하여 是非가 있을 것은 當然한 일이다. 一部에서는 速記教育無用論을 펴는가 하면 一部에서는 必要性을 強調하여 積極 獎勵하자고 要請하고 있다. 雪上加霜格으로 教育을 맡은 나는 남이 알지 못하는 苦衷이 있다. 美國人의 先祖가 美大陸을 開拓할 當時의 苦衷에나 比할까?

行政府에 所屬된 公務員 教育機關에서 速記學을 本格的으로 教育하는 것은 처음인데 大韓速記協會에 加入되지 않은 法式을 導入教育한다면 아마도 놀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理由를 現時點에서 따질 余裕가 나에게는 없다. 어떻게 하면 警察各機能別로 用語를 體系的으로 빨리 整備하고 어떻게 하면 大韓速記協會에서 認定하는 警察獨特한 速記學으로 發展시켜 數年來에 會員으로 加入할수 있을까 하는 問題가 더 時急하다. 아마 이러한 構想(空想)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速記教育에 있어서는 教育計劃이나 內容面으로 行政府에서는 앞서 가지 않을까 現在의 괴로운 心情을 스스로 慰勞해 보기도 한다.



(酒)

(村)

李 大 奉

어느 여름날 서울의 초저녁에 오랫동안 친구와 몇 번쯤은 낮익은 교수님을 모시고 淸進洞
이라 酒村에 들렀더니

사립작 여닫는 문에

땀기머리 새악시들의 분주한 총총걸음이 文明의 오염지구를 대피한 數 많은 nostalgia
들의 텅털한 막걸리 주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쁘기만 하다.

열두어살 꼬마가 손을 벌이면 달을 天井구석에

訓民正音 반포를 붓글씨 縱으로 써내린 窓戶紙로 둘러감은 호롱불이 四方의 壁體 소
나무皮위에 춤을 추고

어릴적 村家의 시렁위에 보리밥 얹혀놓던 소쿠리 겹으로 포개 天井을 修飾하고

통나무 의자에 둥그스럼한 박달나무 술상이 枯木의 흉터로 뚜울린 구멍 유난히 調和
를 이루어

푸르덴—한 李朝의 오지술병 투박한 종기에 담겨진

부패한 뜨물의 情趣가 분위기를 압도한다.

서른한층의 빌딩, Ford自家用, 권태로운 高架道路, 휘황한 산테리아, 광란하는 재즈,
만일버스의 시커먼 매연, 그리고 핫팬티가 싫어서 피난왔다는 안도감이 교수님의 안경
너머 눈가의 잔잔한 웃음, Miss Kim의 입가의 微笑속에 넉넉하다.

햇된장에 풋고추, 날오이 조각, 강원산골休戰線에서 맛들인 더덕부침이 口味를 돋우고
매큰해 입안 얼얼한 찌개가 주거니 받거니 건네는 잔의 술기운을 더더욱 오르게 한다

오줌마려 싸리문짝 열고 뒷간에 갔더니 깨진 독에 담배꽂추 너절 한가지 섭섭(?)은
선풍기 덕분에 지린내가 없다.

100년은 앞얘기, 30년은 뒷얘기, 오늘을 시점으로 對話가 오가고
닉슨의 헛기침과 毛택동의 감기가 어떤 유행병을 낳을지 궁금스러워서
DMZ의 다람쥐 언제나 북녘땅 밟으려나 嘆하고

책독에 담겨진 쌀 걱정과 19공탄 불구멍 엇비슷이 놓아 절약하는 궁상스런 얘기는 어
뻥고

시장바닥 구멍가게로 부터 맨션아파트 슈퍼마켓에 점포차리면 돈벌이는 팬참은가 우
리집은 미아리 서울의 보통시 변두리라 당구장은 재미를 못볼 것이고
여편네의 지당한 바가지는 男丁네의 동키호텍식 푸념을 술상에 쏟는다.

여보게 季君, 우리세대의 병폐는 개인의 價値觀은 있으되 모두들에 共通하는 哲學의
빈곤으로 오늘의 카오스를 낳은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없는 사람에게 더욱 살기 쉽고 생각있는체하는 우리들은 더욱 살기 어렵고
외로운 게 아닌가.

어허 교수님 술취하셨나! 눈까풀 아플하고 어지런듯 취기올라 豪缺스럽게 誤河를
쏟는

아, 눈자위 어슴프레 붉은색 감돌아 더 수줍은 아가씨 다소곳한 표정 선생님께 드리는
술잔이 정겨웁다나.

소나기 나리는데 호박잎 우산받고 발가숭이 뛰놀던 개천가의 천진한 에널곱살 積
追憶에

동짓달 한밤중 청승스런 자그메의 다듬이 방망이소리
댕기느린 곱던 내 누님의 청아스럽고 애절한 가야금 산조 중모리대목이 머얼리 들려
오는 듯……

육자배기의 흥취라도 꺾들었으면 : …

現代를 의식하는 커단 가슴의 空洞을 酒村에서 조금은 메우고
차암 요 근태 드물게 유쾌한 기분은 酒神의 恩寵이런가.

71. 7. 24

(大尉·陸軍參謀總長秘書室·前國會速記士)



路邊雜商

金 源 柱

“幸福과 不幸은 새끼줄과 같이 함께 꼬여져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幸福과 不幸은 둘다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비교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力說하는 이도 있다.

人生을 幸福하게 보느냐보다는 否定하는 便이 더 많으니 역시 幸福한 삶보다는 不幸한 삶이 더 많을수 밖에 없는 算術이 여기에도 따르기 마련이고 보면 數學하고는 緣이 없는 나로서는 이 순간에도 주름살이 들어날까 겁이난다.

그렇다고 萬事를 웃음으로만 浪漫的으로 處理하기엔 先天的으로 주어진 個性과 後天的인 環境與件이 너무나 貧弱하고 보면 否定의 便에 스스로 加擔하는 愚를 犯하려 한다.

그러고 보니 이도 저도 모두를 否定하는 셈이 되는 矛盾을 招來하게 된다. 塞翁之馬의 古史처럼 슬프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요 기쁘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삶이란 더욱 不幸한 人生이 아니겠나 생각해 본다.

여기에 緊急動議로 東洋哲學의 用語를 빌어 陰陽으로 새로운 學說이라도 만들어 曰 “春光陰陽幸福論”을 滿天下에 公開하지 않으면 안될 急迫(?)한 時期에 이르렀다고 보아 自說을 감히 여기에 抄하여

소개하노라.

文字 그대로 陰은 不幸이요 陽은 幸福이다. 愛國心(?)을 십분 發揮해 한글전용으로 풀이하면 “밤은 슬픔이요 낮은 즐거움”이라.

歷史는 밤에 이루어진다고도 하지만 어두운 밤보다는 밝은 낮이 더 좋다.

칠혹같은 어둠을 헤치고 따사롭고 밝은 햇빛이 東窓을 「노크」하면 四肢를 펴고 활보하며 大自然의 森羅萬象을 보라. 들에 핀 향기로운 꽃들은 저마다 다투어 교태를 부리며 誘惑의 손을 내밀고 있으며 울울창창한 深山幽谷에는 水晶같이 맑은 벽계수가 가락을 내어 흐르니 산새 들새들은 그 가락에 맞춰 「코라스」를 連唱하며 荒莫한 廣野에 달리는 人生아 너가는 곳 그 어디메냐?

백팔번뇌를 다 씻어주겠노라고 山으로 오란다.

오늘은 도봉산, 來日은 雪岳山, 俗離山 한라산, 언젠가는 世界의 名山인 金剛山, 보는 사람과 보는 角度에 따라서 혹은 생각하는데로 千態萬象으로 보인다는 1만 2천봉의 奇岩怪石. 배달민족 弘益人間의 傳說이 얽히고 설킨 한반도의 大雄姿 白頭山.

天地에서 흐르는 물은 왜 東과 西로 갈

라져 압록강 혹은 두만강으로 흘러야 하나. 일도창해의 운명은 같이 타고 났는데도 東西中 兩者擇一한것인가 아니면 風雲이 그렇게 운명을 만들어 주었나.

西海로 흐르는 압록강과 東海로 흐르는 두만강이 어느편이 더 幸福하고 不幸하다고 客觀적으로 斷定할수는 없다.

幸福이란 돼지처럼 편안하게 먹고자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갈대의 幸福이 금수와 다른 人間의 幸福인 것이다.

思索을 떠나서는 幸과 不幸이 있을 수도 없고 善과 惡, 모든 哲學 科學 文明이 存在할수 조차 없는 것이다.

讀書는 思索을 풍부하게 해준다.

食糧이 肉體에 주는 營養에 못지 않게 讀書는 精神에 대한 營養이 된다.

20代의 讀書는 窓門틈으로 달을 쳐다보는 것과 같고 中年의 讀書는 마당에 나서서 달을 쳐다보는 것과 같지만 노년의 독서는 놀다란 발코니에 서서 만월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고한다.

나는 도대체가 時間이 없다. 너같이 時間만 있으면…….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時間이 없어……云云. 自己변명 自慰 내지는 諦念하기에 알맞은 말이다.

물론 개중에는 時間에 쫓기다보면 책한 권도 제대로 못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姿勢에 있다 하겠다.

讀書란 한가한 사람이 무료하게 消日하는 手段이 될수는 없다. 無能에서 오는 現實逃避의 讀書가 되어 서는 더욱 안될 말이다.

시작은 半이라고 한다. 어떤 目標를 設定하고 거기에 關한 文獻을 들추며 깊이 그리고 넓게 讀書하라.

주어진 環境에서 時間的 空間的 制約을

당하고 있는 社會生活에 있어서 제 아무리 經險이 산 知識이라 하더라도 일일이 體險으로만 삶을 據得하기에는 너무 無力한 人間이다.

그래서 讀書는 그런 面에서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識見을 넓히는데는 또한 外國語가 필수적인 것은 재언을 要하지 않겠지만 先進 外國의 文物을 보다 깊이 알려면 역시 그 나라의 文獻을 찾아보지 않을수 없다. 물론 著名한 번역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部分的이고 斷片的이고 皮相的이며 量的으로도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은데다 읽는 맛 또한 전혀 다르다 「비프스틱」이나 「스키야끼」를 된장찌개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서 外國의 맛 (本然의 味)을 그대로 알수는 없다.

原書를 보는 맛 또한 거기에 있다 하겠다.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H翁이 우리의 고유 말에 어제, 오늘, 모래, 글피는 있어도 내일(來日)이 없다고 했다.

얼마나 슬픈일인가?

내일이 없는 人生은 부평초와 다르게 없다. 日本速記人中 60代에서 實務에 從事하고 있는 大多數가 나이가 많다고 자탄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항상 退化하지 않은 實力研磨를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速記人들은 40代도 채 못되어 한탄하는 諦念의 넋두리를 종종 듣는다.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폭넓은 讀書는 여기에도 數學의 公式처럼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줄 것이다.

(國會速記課)

放送速記와 나

徐 允 錫

<文化公報部對共課>

10年이면 江山이 變한다는 말이 있다. 어언 速記와 因緣을 맺은지도 벌써 16年이 지났다. 그 동안 速記界는 많이 變했다. 速記界를 주름잡던 여러 先輩들이 昇進 또는 轉職했는가 하면 새로운 有能한 新人들이 많이 登場하였고 또한 速記法式이 改良 發展되어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新人들의 速記術을 따라갈수 없을것만 같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연한 機會에 速記에 손을 대게 되었다. 6. 25直後 除隊한 나는 親舊의 勸誘로 會計講義를 들으러 學館에 나간적이 있는데 이때에 講師가 黑板에 異常한 線을 꼬불꼬불 써놓더니 이런 글을 아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마침 아는사람이 하나도 없고 신기하게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速記라는 것이다. 世上에는 별 재주꾼이 다있으며 우리가 平時에 接觸하지 못하는 또 다른 世界가 있다는것을 알고 格別한 關心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速記를 배울 方法을 몰라 동경만 하고 있었다. 마침 이때 어릴적 親舊를 오랫동안 만나 閑談끝에 世上에는 異常한 글씨가 있다는 얘기를 했

드니 그가 바로 지금 國會速記學校에서 速記를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을 아껴 주었다. 그때부터 速記를 배우자는 慾望과 執念이 생겼던 것이다. 그後 1956年에 當時 民議院 事務處內에 있었던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에 入學하여 1年동안 피나는 努力을 했으나 원래 재주가 없어 優等은 하지 못하고 겨우 卒業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職業速記士가 되고자 하는 慾望은 더욱 불타올라 繼續 練習하여 速記術을 연마했다.

그後 現在 農協秘書室에 勤務하는 金俊永氏와 함께 서울驛前에 速記事務所를 내고 請託이 들어오면 速記를 해주었다. 이때부터 社會의 公益에 參與하게 되었고 職業速記人으로서의 第一步를 내디디었다. 처음에는 實務에 能하지 못한지라 고생도 많이 했으나 차차 熟達되고 보니 더욱 興味를 끌게 되었다. 또 有名人士도 한분 두분 알게 되었으며 關係部處에도 발을 넓혀 社會文化面에 參與하는 機會가 자주 생기게 되었다.

그後 5. 16軍事革命이 일어나 國會가 解散되고 有能한 速記人들은 軍門에 入隊

하거나 흠어져 速記士를 求하기 힘들게 되었다. 當時에 現在 大韓日報의 前身인 서울 日日新聞에서 軍事革命 委員會에서 發表되는 布告文이나 重要發表文을 記錄해줄것을 要請하여 이때부터 나의 放送聽取速記가 시작되었다. (當時 軍事革命委員會에서는 一切의 報道文을 서울中央放送局을 通해서 發表하였다)

그後 公報部の 放送速記의 必要에 따라 金俊永 崔錫模氏와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金俊永氏는 農協으로 崔錫模氏는 國會로 進出하고 그後任으로 宋鍾學 李宗燮 崔炳喆等 諸氏와 함께 일하다가 他職場으로 옮겨가고 現在는 尹壽鉉 李建植氏等과 함께 일하고 있다.

速記를 하자면 여러가지 失手와 逸話도 많다. 放送速記에는 補助用으로 錄音機가 必要하다. 그理由는 遠距離放送은 感度가 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分辨할 수가 없어 困難을 느끼게 되어 錄音을 하게된다. 이때에 放送速記에 熟達되지 않으면 正確하게 記錄하기 힘든 것이다.

서울中央放送局에서 일할때 이런 일이 있었다. 放送鑑聽員으로 있던 Y씨는 速記人이 아닌데다가 放送聽取業務가 처음인지라 무척 애를 썼다. 그때 Y氏는 내가 速記를 해두었다가 풀어나가는것을 보고 신기해 했고 부러워했다. 더구나 Y氏는 생소한 일을 처음하게 되니 조금만 感度가 나빠도 그게 무슨 말인지 分辨을 못하고 原音을 가려내지 못해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알수 없을 지경이면 나에게 協助를 要請하여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습관대로 들어보고 이런말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다시 들어보라고 하면 그가 確認하여 보고는 무릎을 치며 쾌재를 부른

다. Y氏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寶物을 나때문에 찾은양 어린애같이 마냥 기뻐한다 나는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닌데 그는 나의 신비한(?) 速記術에 感嘆해 했다. 성미가 곧고 正直한 Y氏는 自己가 수차 確認하지 못한것을 알게 하여 주어 이것이 感謝한 마음으로 變하여 勤務時間이 끝나면 술을 사면서 「徐兄은 放送聽取에는 귀신이야」하면서 내 處地를 부러워 했다. 나는 조금도 신기한 것이 없는데 그는 무척 신기해 했다. 그것은 내가 방송을 옮겨 들었다는 그理由보다 速記를 한다는 여기에 더 神通한 힘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것 같았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補助用으로 쓰는 錄音機의 벨트가 끊어져 이것을 急히 求하러 忠武路 入口의 어느 電波社에 찾아가간 일이 있다. 過去에 안면이 있는 主人이 없어 명함을 내고 찾아온 事由를 말했다니 명함을 한참 드러다 보고는 「그렇지 放送局에는 “속기사”가 있어야 할거야」하면서 무척 반가워 한다. 그는 같은 技術者를 만나 반갑다는 눈치다. 그런데 그 뒷말이 結작이다 「規模가 크고 또 正確해야 하는 放送局에는 적어도 機械의 어느部分이 故障나든지 고칠줄아는 “속기사”가 있어야 할거야」

나는 그의 말뜻을 짐작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速記士를 機械故障을 速히 고치는 速技士(?)로 착각하고 있었다.

또 이런 일도 있다. 지금도 放送局에서 活躍하는 B氏는 재치가 있고 “유모어”가 있는 친구로서 가끔 同僚들을 잘 웃기며 또 그의 해박한 지식은 모두가 부러워 하는 信望있는 “엘리트”인데 그가 어느날 나를 부르며 이런 말을 했다. 「徐兄! 速

記는 무엇을 基準으로 하여 쓰는것이요」
하고 물어 오길래 나는 無心코 배운대로
「速記란 音記를 주로 한다」고 對答했더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名曲을 들으면
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名曲도 쓸수 있
오」하고 장난끼 있는 웃음을 띠었다. 순
간 나는 精神을 차렸다. 나는 無心코 對
答한 말이지만 그는 惡意없는 어떤 장난
의 꼬투리를 잡자는 눈치 같았다. 그렇다
면 비록 惡意없는 장난일지언정 우리 쏘
速記人的 명예와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서는 안될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끝에
나도 빙그레 웃으며 「암! 쓸수 있고 말

고 그런것도 못쓰는 속기사가 있는 줄아
시오 그런데 유감이란 말이야 저렇게 아
름다운 선율을 文字로 나타낼수 있는 악
보가 없단 말이야」하고 대답했다. 그랬더
니 「徐兄을 골리려다 내가 當했다」하며
나가 茶를 사고 즐겁게 웃은 일이 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으나 限定
된 紙面이라 더 쓸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
앞으로 훌륭한 速記士가 많이 나와 國內
外로 많은 活躍을 해줄것을 기원하며 여
러 先輩들이 아끼는 이 速記界를 혹시 더
럽히지나 않을까하는 것이 송구스럽다.

<隨 想>

有 感

申 熙 東

炎君의 극성엔 더위를 모른다는 犬公조
차 혀를 석자나 빼게 만든다. 이런뎨 주
먹같은 소나기나 한줄금 내렸으면 하는
마음뿐 다른 아무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이걸 더위타만도 아닌 感情의 무
덤에서 오는 결과 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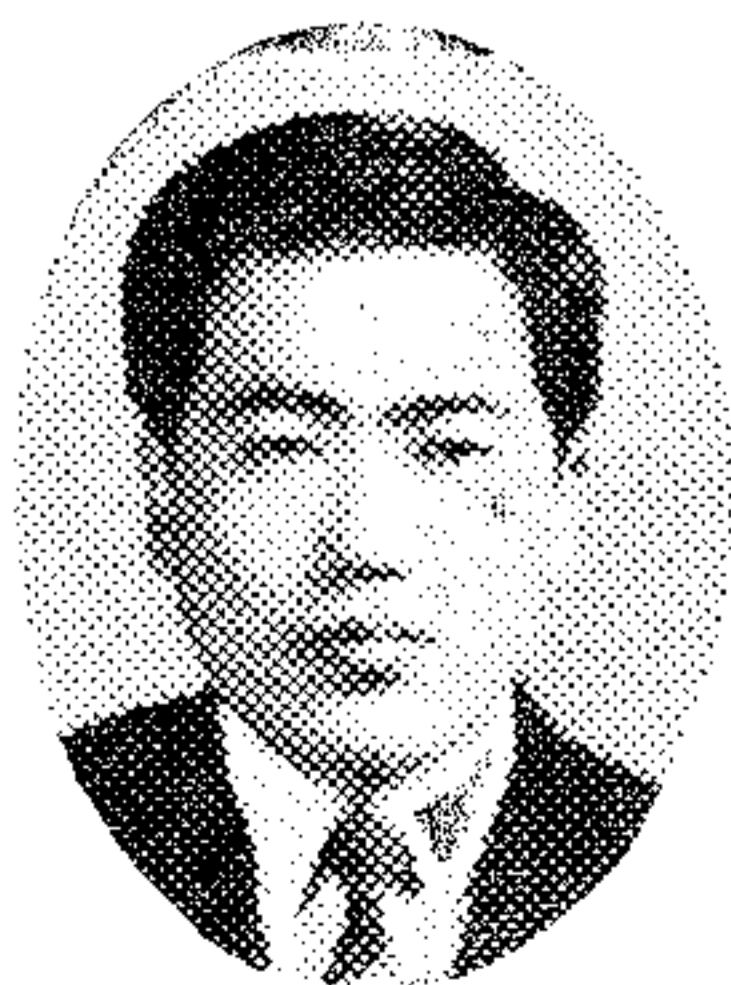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떠나가는 님의
발걸에 진달래꽃을 뿌려줄 수 있었던 情
恨의 詩人 素月처럼 내게 感情만이라도
豊富해져야 할텐데…….

눈길을 돌려 혹시나하는 未練으로 걸어
가는 길을따라 꽃잎이라도 찾아보고 싶지
만 生活은 나에게 조금의 여유조차 앗아
가 버린다. 어쩔수 없는 現實의 奴隸가
되버린 내게 이 現實이란 놈은 티없는 對
話를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생각은 앓고 자기만의 오만을 피
우고 있으니 이걸 누구의 잔인한
祈禱인지? 서투른 인생이나마
말하려는 나는 오늘도 시달리며
마져 그래야만 하는가?

누구에게나 있었던 思春期 時節

엔 그래도 주위에 생각을 뿌리면서 머
余情앞에 버티고 서서 아쉬움을 먹기도
했었는데……. 前부터인것처럼 感情은 이
렇게도 무덤대로 무디어져 있다.

허다보니 生活의 焦燥에서 오는 不安으
로 그 옛날 季節을 보고 느낄수 있었던
마음의 풍요함은 아무 거리낌없이 이별을
告해 버렸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바라
는 모든 것이 함께 오리라 믿으며 어디에
서 헤어졌는지도 모르는 아쉬운 浪漫속에
회한을 느낀다. 그렇다고 지금의 내가 아
무것도 느낄수 없는 木石은 아닌 이상 결
코 언젠가는 마음의 빈 터전위에 사과
나무를 심어놓고 어둠이 깔리면 벌렁 들
판에 들어누어 빛을 뿌리는 별들과 벗하
면서 동실뜨 큰 잔으로 마음도
몸도 취해가며 기름진 大地위에
나의 울분을 힘껏터뜨려 보리라.



(國會速記課)

◎ 創 作 ◎

(第 2 回)

成 長

金 致 元

「훈」은 잠깐 녀을 잃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듯 불길한 기분이 스며 들어왔던 것입니다.

편지 속에 나타난 토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날, 숲속에서 토끼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중대한 결의를 한다고 합니다. 늙은 토끼, 젊은 토끼, 아기토끼, 살이 통통하게 찐 토끼, 뼈빠마른 토끼, 영리한 토끼, 어리석은 토끼, 공부잘하던 수재 토끼, 싸움잘하던 토끼, 연애중이던 토끼 모두가 이 날은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새들은 나무에서 방청을 합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속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우리들은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토끼가 이렇게 말하니, 모두 덩달아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는 꿈이나 늑대처럼 힘도 세지 못하고, 이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집이나 옷도 제대로 없습니다. 만원버스에 시달립니다”

다른 토끼가 또 말을 했습니다.

“참 슬픔니다. 여우가 오면 도망가고, 개가 와도 숨고, 독수리가 오면 달아나야 합니다.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모두 힘이 센 놈뿐입니다”

“세금에 시달려야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굶실대야 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던 늙은 토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겁만 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겁장이 노릇은 그만두고, 모두 연못에 가서 빠져 죽읍시다.”

“그렇시다. 그렇시다.”

「토끼들 집단자살기도」라는 제하의 기사가 다음날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교지에다 실었던 것입니다. 그와 「훈」의 「그룹」은 모여서 토의를 하고는 그 내용을 발표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끼얘기는 그들이 다같이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신문같은 데에다 자기들의 스승을 은근히 비판해 보기도 하면서 불만을 해소시켜버리곤 했습니다.

가령 졸업을 앞둔 어떤 순정파는 「학교에서 싫었던 기억은?」이라는 설문에다가 응하기를 「수업중 일급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부교재가 없다는 이유로 선생에게 매맞은 기억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그들 학교 출신의 대학원생의 자살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것이 교내에서 화제였습니다. 그런 일이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다고 그들은 곧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지않은 기억을 갖고있는 그 선생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앞에서 논평했습니다.

「우리학교의 위신 문제야. 자살이란... (학생들은 이순간 긴장)..... 비접한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그들 「그룹」은 반발하는 글을 교지에다 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즈음 충격받은 사건을 알고 있다. 이 기회에 신문에 관심을 갖고 읽었다. 그리고 거기 나타난 우리 사회상에 대해서 토의했다.

부유한 나라를 좇아가 보려고 경제성장에만 기울인 반면 정신의 빈곤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민.

우리는 가장 감수성 민감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살이란 비접한 것이야」라는 정도의 속물적인 애

기밖에 해 주는 사람이 없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산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말해버릴 수가 있을까?」

그와 「훈」과 몇명이서 저녁햇살이 비치는 산등성이에 올랐습니다. 가을잎들이 바람에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풀들의 빛갈이 바래서 어디에나 앉기에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공동묘지 옆에까지 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흰 상자들이 뜨문뜨문 놓여있는 것을 보고 벌통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통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거기엔 사람의 뼈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들은 주위의 묘지가 모두 파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것 좀 봐”

한명이 구덩이를 들여다보고 외쳤습니다. 구덩이 속은 판을 놓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골이 그대로 덩구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자, 가, 잘못왔다.”

그러나 「훈」의 얼굴은 자못 심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분묘를 이장시키려는 모양이야.”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훈」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는 「훈」에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건데 뭘.”

그는 「훈」의 마음이 약하다고도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훈」에게서는 여전히 중요

의 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폐허일 뿐이야. 너무 상심하는 체 하지마.

육체는 허무하고 정신은 영원하니까.」라고 그는 사뭇 설교조로 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에 그는 토끼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가 자살이라든가 죽음에 관한 체계를 쌓기 시작했던 게 틀림 없으리라고 「훈」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서는 마침 개구리들이 모여서 “개굴개굴” 노래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토끼들이 경충경충 뛰어오는 것을 보고,

“야, 큰일났다. 토끼들이 쳐들어왔다. 어서 도망가자.”

하며, 모두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를 본 늙은 토끼는 말하였습니다.

“허허,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약한 것도 있군!”

토끼들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장이 토끼들은 모두 늙은 토끼를 따라 갔습니다.

라고 「이솝」은 얘기했지만 내가 추측컨대 겉장이 토끼들은 달아나고 용감한 토끼들만이 따라 갔을 것입니다.

다음날 이 토끼들을 비웃는 기사가 「가십」란에 실렸습니다.

어떤 토끼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변절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산

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더 자초지종 무서운 남녀가 함께 살고 함께 죽으려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은 친구로부터 마지막이 되어 버린 편지를 받고도 한동안은 긴가민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죽으려고 마음 쓰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훈」은 이해합니다.

한편 의아심이 들어가는 것은 최근에와서는 비교적 그가 행복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훈」이로서도 부러워 보일만큼 그들은 물질이나 정신이 모두 풍족해가고 있는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생활의 의욕과 활기에 넘쳐서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털어 놓으면서 「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방을 얻어야겠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구해야겠으니 네 힘을 좀 빌어야겠다. 너는 또 네 아버지 힘을 빌어야겠지만 말이다」

이런 사정을 한 일은 좀체 없었습니다. 「훈」은 기꺼이 자기 노력을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꺼내 그에게 주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여쭙어서 그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전과는 달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갈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역시 살림을 하게 되면 생활인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고 「훈」은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 規定 施行細則 1969. 5. 1 制定

제1조 (원서제출)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소정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송할 때는 마감 당일의 소인이 찍혀 있는것은 유효로 한다.

제2조 (검정료) 검정료는 1.2.3급은 300원 4.5.6.7.8급은 200원으로 하고 원서제출시에 납부하게 한다.

제3조 (출제) 출제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 (낭독) 위원회 결의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실기시험) 자격검정규정 제12조 실기시험의 검정기준은 동규정 11조에 의하고 실시방법은

국어속기...1급~3급은 연설체(1次) 분과 논설체(2次) 5분을 실시한다.

4급~5급은 연설체(1次) 3분과 논설체(2次) 3분을 실시한다.

영어속기.....1급~3급은 상업영어(1次) 5분과 시사영어(2次) 5분을 실시한다.

4급~5급은 상업영어(1次) 3분과 시사영어(2次) 3분을 실시한다.

但 각시험에 있어서 표준속도에 과부족이 현저히 나타났을 때에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再낭독할 수 있다.

제6조 (채점기준) 1. 국어속기...오자, 탈자는 매 1자에 실점 1자로 계산하고 첨자는 매 3자에 실점 1자로 계산하여 만점을 100으로 하고 실점자수의 합계가 전체 낭독자수의 100분의 몇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여 그 수자를 뺀 나머

지 수자를 득점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 한다.

2. 영문속기...영문 단어의 오자, 탈자는 한 단어가 틀린것으로 계산하고 첨자와 . , ; : ! ? 등 영문 부호가 빠진것하고 대문자가 소문자로 되어있는것은 3개를 합하여 한 단어가 틀린것으로 계산하여 만점을 100으로 하고 실점 단어의 합계가 전체 단어의 100분의 몇에 해당하는가를 계산하여 그 실점한 단어를 뺀 나머지 단어를 득점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기타 채점에 있어서 이의가 생겼을 때는 검정 위원이 협의 결정한다.

제7조 (수험장내 규율) 수험장 내의 규율은 당해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르고 부정행위를 한자는 그 시험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8조 (자격증서및 자격증) 검정시험 합격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발송하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 증서를 발행한다.

자격증서의 발행 수수료는 300원으로 한다.

검정합격자는 검정합격자 명부에 등록되며 등록된 자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을 발행한다. 자격증 발행 수수료는 100원으로 한다.

제9조 (속기실무 경력의 인정) 부칙 제1조에 의한 속기 실무 경력(5년이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69년 6월4일 부터 시행한다.

會 務 日 誌

71. 7. 6 文化公報部로부터 2/4分期事業,變更承認公文接受
(競技大會및 資格檢定事業을 3/4分期로)
7. 8 第 22次 理事會
資格審查및 技能檢定規定 第 8條를 改正
第 9回 夏季無料速記講習實施의 件
7. 12 第 9回 無料速記講習 受講願書接受
7. 26 第 9回 無料速記講習 (國語·英語)開講
第 23次 理事會
「速記界」廣告料 2. 8制實施決定
8. 5 第 24次 理事會
無料速記講習結果에 대한 座談會開催의 件
速記競技大會및 資格檢定試驗實施의 件
8. 7 第 9回 無料速記講習終講
座談會開催
8. 14 第 25次 理事會
競技大會및 資格檢定試驗日字 確定
8. 28 第 2回 全國速記士 資格檢定試驗 (英語速記) 實施
8. 30 第 2回 全國速記士 資格檢定試驗 (國語速記) 實施
8. 31 第 2回 全國速記競技大會 實施
(正級 16名 : 準級 11名)
9. 2 第 2回 全國速記競技大會施賞式
正級 1等 : 金 仙 玉 準級 1等 : 鄭 盈 澤
2等 : 高 隆 繁 2等 : 李 貞 順
3等 : 安 喜 榮 3等 : 金 敬 海
9. 30 3/4分期 國庫補助金受領 226,500원 <總務部>

編輯後記

- 하늘이 높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청아하고…… 마음부터 풍요해지는 가을이다. 산을 찾고 들을 찾는 즐거움 보다는 우리 속기인들은 예산국회에 대비하여 한층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 진다. 作爲의 노고를 作爲의 喜悅로 가다듬을 수있는 마음이 짐이 필요하다.
- 생기있는 감동을 얻을수있는 책이 되려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절실히 아쉽다. (仙)
-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다시 오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새 책을 받아 보시는 분들도 이 진리를 되새김 하시리라. 가을을 시원하다고만 할 수 있으랴. 회한에 괴로와 하고, 무상을 아쉬이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든다.
편집을 마쳤다 해서 결코 시원한 느낌만은 들지 않는다. 여유있을 줄 알았는데 어드레 시간은 촉박해 온다. 다른 분들께 미루고 책임을 다 못한 부끄러움, 덜 된 것 같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허전하고 만족치 못한 점이 수 이 많다.
그러나 보다 풍성한 우리의 속기계로 편집하려면 당초의 의도에 따라 계속 노력을 경주할 각오를 새로이 한다.
- 원고의 폭죽로 이번에 실지 못한 육고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 다음호에 약속드리면서.
- 여러분, 많이 충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정한 얘기타도 좀 와서 해 주세요. 편집실에서는 따뜻한 커피 항상 준비해 놓고 있으니깐요. 그러면 다음 뵈을 때는 겨울이 되겠군요. (致)

季刊 速記界

<第7號>

1971年 9月 30日 發行 非賣品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